

가계대출 보름 새 2조 ↑... 영끌족 귀환에 빚 폭탄 우려

〈5대 은행〉

올해 4~5월 10조 원 가까이 늘었던 가계대출이 이달 보름 만에 2조 원 넘게 불어났다.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주택 경기가 회복세를 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한도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신용대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16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 4000억 원 늘어났다. 증가 폭이 4월 4조 1000억 원보다 커져 지난해 10월(6조 2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두 달간 늘어난 가계대출만 9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이 같은 추세는 이달에도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KB· 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가계대출잔액은 705조3759억 원으로, 5월 말(703조2308억 원)보다 2조1451억 원 확대됐다. 지금 같은 추이가 월말까지 지속될 경우 증가 폭이 4월·5월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서울發 주택 경기 회복세 틈타 주담대, 13일 만에 1.9조 불어나 상승 지속뎀 4·5월과 수준 비슷 DSR 강화로 '막차타기' 영향도 "하반기에는 대출 증가액 줄 것"

주담대가 전체 대출을 이끌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잔액 548조2706억 원)가 1조9646억 원 불었다. 신용대출(102조9924억 원 → 103조2757억 원)도 같은 기간 2833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이유는 주택 매매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12월 2만6934호에서 1월 3만2111호로 늘었다가 3월 4만233호까지 증가했다. 4월 역시 4만4119호로 확대세를 이어갔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가격 상승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KB경영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전국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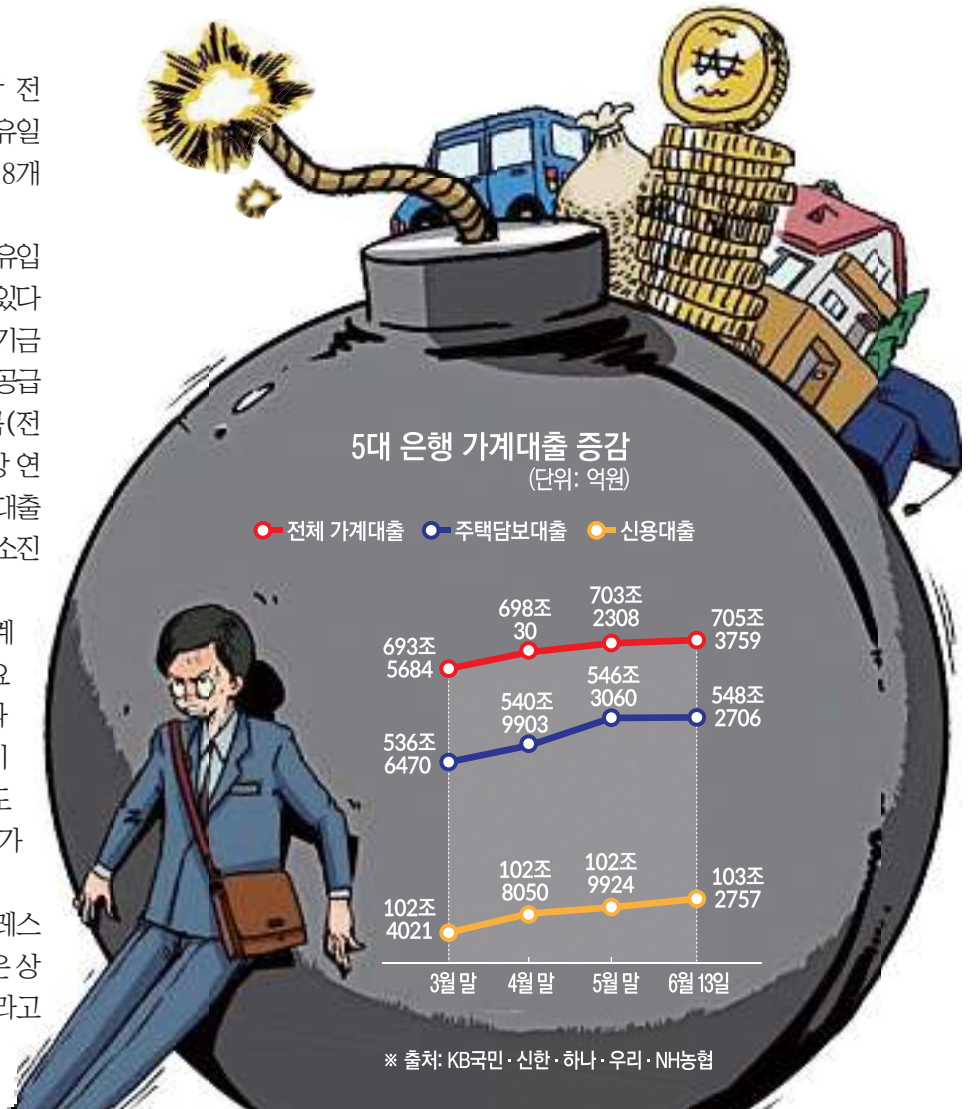
택매매가격전망지수(93.3)는 '하락 전망'이 우세했으나, 서울(102.1)은 유일하게 100을 웃돌며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상승 전망'으로 전환했다.

정책금융 상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4월부터 주택도시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되는 상황이다. 디딤돌(구입)·배팀목(전세) 등 주택도시시기금 정책대출은 통상 연초에 자체 재원으로 공급돼 은행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재원이 소진되면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내달부터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앞두고 막차타기 수요가 몰린 영향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가산금리는 오르고 대출한도는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하반기 증가 폭은 둔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올 하반기 가계대출은 상반기에 비해 증가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범근 기자 nova@



빚 늘어난 가구 70% “부동산 매입보단 생활비 목적 컸다”

현대경제연구, 가구 부채 증가 보고서 부동산 구입 비중 전년比 1.2%p ↓ 생활비는 같은 기간 4.8%p 증가 상환부담 늘어 재무건전성도 악화

지난해 부채가 증가한 10가구 중 이미 빚을 안고 있는 가구가 절반 이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채 증가 원인으로 부동산보다 생활비 목적이 더 두드러졌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2023년 부채 증가 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채 보유 가구 중 부채 증가 가구 비중은 전년(39.2%)보다 3%포인트(p) 감소한 36.2%로 집계됐다. 부채 증가 가구 중 기존에 부채가 있던 추가 차입 가구 비중은 약 73%였고, 새로 돈을 빌린 신규 차입 가구 비중은 약 27%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부채 보유 가구의 재무상환(평균)을 보면 △가처분소득 6094만

원 △금융부채 1억2010만 원 △이자비용 435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부채 증가 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 5714만 원 △금융부채 1억3336만 원 △이자비용 417만 원이었다.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선임연구원은 추가 차입 가구의 부채 증가 배경으로 부동산 구입보다 생활비 목적이 주요인이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추가 차입 가구의 총 금융부채(이하 평균)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1억6413만 원이

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구입 목적의 부채는 같은 기간 2.2% 감소한 7915만 원으로 집계됐다.

추가 차입 가구가 부채 증가 원인으로 부동산 구입을 꼽은 비중도 전년 대비 1.2%p 감소한 28.7%를 기록했다. 반면 생활비 목적은 같은 기간 4.8%p 증가한 27.1%로 집계됐다.

신 선임연구원은 “국내 가계부채의 경우 부동산 구입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여전히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만 2023년의 경우 특히 추가 차입 가구의 부채 증가는 생활비 목적이 주요한 요인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추가 차입 가구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해 재무 건전성도 악화했다. 이들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22년 38.3%에서 지난해 40.8%로 상승했다.

가처분소득 증가에도 부채누적에 따라 원리금상환액이 더 크게 증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추가 차입 가구의 자산대비부채비율(DTA)도 2022년 31.2%에서 2023년 34.3%로 3.1%p 상승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1400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해외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출 사업확대

Energy Up, Tomorrow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로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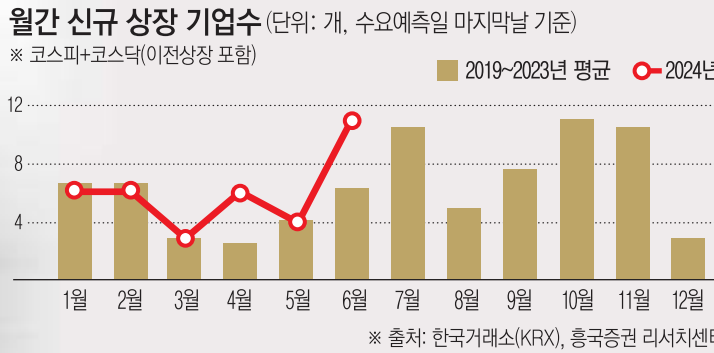
시프트업·케이뱅크 '대어' 줄줄이…하반기 'IPO 큰장' 선다

하반기기업공개(IPO) 시장에큰장이 열린다.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공모주 시장 열기가 조 단위 대어까지확산하는가운데정부의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도 시장에 반영되는 분위기다.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프트업, 케이뱅크 등 '대어'로 꼽히는 기업들이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도 IPO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게임사 시프트업은 올해 1분기 매출 374억 원, 영업이익 259억 원을 기록해 영업이익률이 약 70%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책정된 시프트업의 기업가치는 최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케이뱅크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뜨겁다. 시장에서는 케이뱅크의 기업가치가 5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은행권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경비율(CIR)이 20%대에 진입하는 등 카오뱅크보다 앞서나



시프트업, 기업가치 최대 3.5兆
'5.4兆' 케이뱅크도 상장 청신호
토스·LG CNS·SK에코 출격 준비

는 지표도 있어 이를 반영하면 기업가치는 5조4000억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LG CNS, SK에코플랜트도 상장을 준비하거나 검토 중이다.

지난해 상장 계획을 거둬들였던 서울보증보험, 케이뱅크의 재도전도 예상된다.

여기에 SSG닷컴, CJ올리브영, HD현대오일뱅크, 쉘리 등도 투자자들의 상장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외시장에서 몸값도 뛰고 있다. 'IPO 삼수생'으로 불리는 HD현대오일뱅크는 올1분기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서 예상 시가총액 10조 원을 넘겼다. 비바리퍼블리카와 LG CNS는 각각 시총 9조 원, 7조 원대를 기록했다.

최근 IPO 시장이 과열됐고 변동성마저

연말 美 대선·'기업 밸류업' 정책
국내외 이슈, 하반기 증시 호재로
기관투자자 확보비율도 크게 올라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하반기 IPO 시장의 열기는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까지 미국의 대선 등 정치 이벤트가 있고 한·미 기준금리 인하도 예정돼 있다.

국내 증시를 둘러싼 여건도 나쁘지 않

다. 코스피의 경우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개선될 여지가 크다. 코스닥 역시 증시 주변 자금 성격인 투자자예탁금 및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이 각각 55조 원, 82조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개별 종목들의 모멘텀이 시세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지난해 7월부터 허수 청약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됐는데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확약 비율도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1분기(1~3월) 기관투자자의 확약 비율은 9.7%였지만 올해 1분기 33.6%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확약 비율(26.4%)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에선 달아오른 공모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과평가된 공모주가 등장하면 시장이 다시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다"며 "대형 공모주가 블랙홀처럼 자금을 흡수해 시장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상민 기자 si2020@



태그호이어, 해킹으로 한국 고객 정보 2900건 유출

프랑스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명품 고가 시계 브랜드인 '태그호이어'가 해킹 공격을 받아 2900여 건의 한국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명품업계에 따르면 태그호이어는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해커의 공격을 받아 온라인에서 보관하던 세계 고객의 이름, 성별, 출신 국가 등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태그호이어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도 대폭 낮춰야”

대통령실, 세제 전면개편 시사

“중부세, 재산세로 통합이 바람직”
“상속세율, OECD 수준인 30%로”
전문가 의견 수렴 후 7월 이후 결정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중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비쳤다. 중부세는 조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성태윤<사진>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의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중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중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중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



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할 경우 세수 문제가 있어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

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주택자라고 해도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중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부에서 ‘1가구 1주택만 하면 어떻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고가 1주택자보다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하다”며 “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주택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라며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대주

주 할증을 제외해도 최고 상속세율이 50%에 이르는 만큼 세율 인하로 세계적인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형태로 상속세 부과 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현재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 주는 사람이 얼마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을 받는 개별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강조했다. 피상속인이 아닌 각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자녀수에 따라 생기는 왜곡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 원인데 늘려야 한다. 공제 자체가 너무 오래전을 기준으로 결정됐다”며 “서울에서 아파트 한채를 물려받았는데 과도하게 상속세를 내는 부담은 갖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7월 이후 관련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다음달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새벽에도 '실시간 시장 환율'로 자유롭게 환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위험 관리 가능해져

내달 1일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새벽 2시는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시간 등을 포괄하는 시간대로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투자자의 주 거래 시간대에 원·달러 실시간 환율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한국 주식·채권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 이후에도 새벽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 또는 주로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RF1·이달 기준 26개)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RF1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이다

국내 투자자가 야간 미국 주식·채권 매수 등 해외 자본시장 투자 시 실시간 환율 아닌 실시간 시장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환시장 종료 이후 미국 주식 매수를 위해 환전 시 시장 환율보다 높은 가(假)환율로 1차 환전되고 다음날 개장 이후 실제 환율로 정산해야 했지만, 내달부터는 새벽 2시까지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실시간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또 국내에서 영업하거나 해외 진출한 수출입 기업도 야간시간대 발표되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주요 국 경제지표와 같이 외환·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즉각 반영된 실시간 환율로 적시에 환전하거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장시간에 연장에 맞춰 외국환은행·증권사·외국환중개회사 등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연장시간대 외환 거래 및 관련 결제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야간(야간데스크)에도 근무에 나설 계획이다.

복수의 금융회사는 런던 등 해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새롭게 설립하거나 외환거래 전담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다만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제도 변화 안착을 위해서는 연장시간대에도 적절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유동성 등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위스 프랑화, 중국 위안화 등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통화도 업무종료(COB) 이후 심야시간대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는 만큼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안정적인 국내 외환시장 거래 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

“투쟁” 떠미는 학부모들… 서울의대 교수 절반 “휴진 동참”

오늘부터 '무기한 無진료'

4개병원 교수 55%, 529명 참여
의대생 부모 “지금은 행동할 때”
연세의료원 3곳 27일부터 휴진

서울시 병·의원 휴진율 2.31%
오세훈 “국민 위해 휴업 자제를”

전국 주요 대학병원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번 주부터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실제 휴진 참여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의과대학 산하 4개 병원(서울대·분당서울대·서울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전체 교수 중 절반가량이 17일부터 휴진에 참여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4개 병원 휴진 참여 현황 조사 결과, 전체 교수 967명 중 54.7%인 529명(15일 오후 8시 기준)이 휴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휴진 첫 주인 17일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시행한다. 3개 병원의 합계 수술장 예상가동율은 62.7%에서 33.5%로 낮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위 측은 “휴진으로 진료 예약 변경
이 된 경우 개별 교수 자체적으로, 또는 비
대위 지원을 통해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서울대 의대 산하 4개 병원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있다. 현재까지 비대위에 접수된 지원 요청 건 모두에 대해 예약 변경과 환자 알림 절차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의대생 학부모들은 서울대의대 교수들의 '전면 휴진' 결정에도 더욱 적극적인 투쟁을 촉구했다. 2월 의대 증원 발표 직후 개설된 인터넷 카페 '의대생 학부모 모임'에는 14일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 고품!'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학부모들은 해당 글에서 “최근 의료 파탄 사태로 현 의료시스템의 구조적·기본적 문제를 알게 됐고, 사망이 온통 불합리에 비과학적이고 심지어 비굴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지금껏 교수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환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알고 어떤 사리사욕이 없는 분들인 것도 잘 안다”며 “오늘의 환자 100명도 소중하지만 당장의 환자 불편

에도 지금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12일 긴급총회를 열고, 의협의 18일 휴진과 총괄기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해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연세의료원 산하 3개 병원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고, 성균관대의대 교수들도 18일 휴진과 궐기대회에 참여하며 무기한 휴진 논의에 돌입했다.

반면 개원 의사의 휴진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의료기관 집단 행동 관련 현황'에 따르면 14일 오전 기준

병의원 휴진율은 2.31%였다.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대상(9898곳) 중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229곳이었다. 또 정부가 진료명령을 내린 후 13일까지 개원자 신고를 받은 결과, 18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4.02%였다.

다만 의료계는 응급·중증·희귀질환 환자 진료는 유지할 방침이다. 강희경 서울 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체 휴진 기간을 시작으로 서울대병원은 중증·희귀질환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최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시 의사회를 만난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13일 소셜미디어(SNS)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 쉽게 갈 수 있는 동네병원마저 문을 닫는다면 아픈 국민은 기댈 곳이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서울시의사회에 집단휴업 동참 자제를 간곡히 부탁드렸다”고 했다.

전아현 기자 cahyun@·한성주 기자 hsj@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없다” 강공
의료계 “환자 목숨 더 중요” 분열 조짐

“생명권 우선... 의협요구 수용불가”
산부인과·아동병원 등 “파업 불참”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의료계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거부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전공의 행정처분을 이유로 한 집단행동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야 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 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계 내에서도 집단행동 강행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홍승봉 거점노조증지원병원협의회 위원장은 이날 동료·후배 의사들에게 보내는 기고에서 “나의 사직, 휴직으로 환자가 죽는다면 목적이 무엇이든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며 “10년 후에 증가할 1%의 의사 수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죽게 내버려 두어도 된다는 말인가. 후배·동료 의사들의 결정이지만의 사로서,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 분만 병·의원 140여 곳이 속해 있는 대한분만병원협회는 최근 온라인 임원 회의를 열어 의협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野 “7개 상임위 17일 선출” 압박… 與, 타협 선택할까

野, 원구성 공개토론 거부하자
與 의총 “강경 대응 이어가자”
“남은 상임위 받아야” 의견 분분
일각 ‘의총 회의론’마저 등장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 국면에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17일 국회 본회의 강행 시 국민의힘 이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막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 22대 전반기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의 없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법제사법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10~14일까지 5일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

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구성한 것에 ‘입법 독주’라며 반발, 보이콧도 이어갔다.

문제는 연이은 의총에도 원 구성 협상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잘못된 원 구성 전면 백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공개토론도 제안했지만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국회를 야당당수 방탄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규정은 더더욱 없다”며 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 공개토론 수용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억지’라며 일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7개 상임위원장 몫을 (국민

의힘에) 맡겼더니 가동 중인 11개 상임위를 백지화하란다. 이미 일하고 있는 11개 상임위를 원점 복귀하라니 정시 출발해 정상 운행 중인 기차에서 뛰어내리라는 꼴”이라며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찾는 출구는 국회에 있다. 본업 복귀가 가장 훌륭한 출구 전략”이라며 “잠시 정차했던 국회는 17일 다시 정시 출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에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국민의힘은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연이은 의총에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자’,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 되자, 당 일각에선 ‘의총 회의론’마저 나온다. 국민의힘은 17일 이후에도 의총을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 여당 초선 의원은 이날 본지와와 통

화에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소수 의견이라도 7개 상임위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원 구성 협상 관련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당 전략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 회의를 해봐야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과거에 비춰보면,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원 구성부터 상임위 활동까지) 하는 거 같다”고 전했다.

앞서 당 최다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14일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사가 환자를 떠나면 더 이상 의료인이 아니듯 저 마지막까지 민주당이 몰아붙이더라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떠나선 안 된다”며 “(민주당에 원 구성안을) 양보하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 더 큰 헌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타협보다 강경 대응 기조가 대세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원 구성 협상 관련, 여야 간 교착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준태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어 논의를 한다면 거기서 나온 결론이 국회 모두의 뜻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의미도 훨씬 축소될 것”이라며 “빨리 원 구성이 정상화돼 여야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진짜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에 앞으로 주요 부처 장·차관이 출석할 예정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도 참여해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결론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당정 “아빠 출산휴가 확대…취약층 에너지 바우처 1만원 인상”

〈하절기〉

“육아휴직 자유롭게 할 대책 세울것”
360만가구 전기료 인상 유예 추진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정이 16일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 신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

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저출생 대책 포함해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비상사태이고, 이를 해결하는 게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간의 반성을 토대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저출생 문제가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꽤 많은 시간 논의했다”며 “출산육아 등을 자유롭게 할 실질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채용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 물적기반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 등으로 저출생 대책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 측에서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라며 “정책표결 이후에도 수요자 현장 의견 수시로 수렴해 보완책 마련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올 여름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면서 당정은 6월24일부터 9월6일까지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약 130만 가구에 대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월 5만3000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한 액수다.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름철 재해대응책으로는 취약 계층을 위해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한다.

또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개소 점검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지하차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한다. 지하차도 통제기준 침수심 15cm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중앙아시아 3개국 국민 방문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중앙亞 3개국 순방 마친 尹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에서는 핵심광물 및 경제 협력 확대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3개국 국민 방문을 마치고 이날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국민 방문에선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의 탈황설비 등 60억 달러(약 8조33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카자흐스탄에서는 37건의 문서 합의가 이뤄졌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관련 MOU가 핵심이다. 지질자원연구원과 SK에코플랜트가 참여한 ‘리튬 매장량 조사를 비롯해 시추, 플랜트 구축, 채굴 및 공급망 협력을 담고 있다. 우리 기업의 전주기별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즈베키스탄 국민 방문에선 총 47건의 문서 체결이 이뤄졌다.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가 2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 42량(7량씩 6편성)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프랑스의 도움으로 KTX를 개통한 지 20년만에 자체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처음으로 수출하게 됐다. 텅스텐, 몰리브덴 등 반도체·2차 전지 소재 핵심광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3개국들은 우리나라의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지지하고,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서울대 방문한 보건복지위 “의정 갈등 장기화 안 된다”

박주민 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
의대정원 협의체 구성 찬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속 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병원 집행부를 잇달아 만났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됐다.

복지위 간사 강선우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간담회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서울대병원 집행부와 의정 갈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다”며 “세 단체 모두 공감한 것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국민의 건강권이 가장 우선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비대위의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라며 “전공의에 대한 정부

의 행정조치 취소와 현 상황과 관련한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협의체 구성에 찬성하고,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뜻을 같이 했다”며 “서울대병원 집행부와도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의원은 내일로 예정된 서울대병원 집단휴진이 이날 대화를 통해 바뀌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선 “기존 입장 이외에 다르게 확인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19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와의 논의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진행은 없었지만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조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복지위 서울대 교수 비대위·집행부 현장 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1차관에 게 19일 전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며 “내일(17일) 관련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만약 회의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후에 다시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을 국회가 빠짐없이 짚어달라고 요구했고, 박 위원장 역시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서이원 기자 iwonsoo96@



모든 순간, 스타일이 되다

GENESIS GV70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080-700-6000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2.5T-GDI RWD 18인치(C):복합10.1km/ℓ(도심:8.7km/ℓ, 고속도로:12.4km/ℓ) | CO₂배출량:167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865kg | 자동8단(4등급) ▶ 2.5T-GDI RWD 18인치(nC):복합10.2km/ℓ(도심:8.9km/ℓ, 고속도로:12.5km/ℓ) | CO₂배출량:164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865kg | 자동8단(4등급)
▶ 2.5T-GDI RWD 19인치:복합9.8km/ℓ(도심:8.5km/ℓ, 고속도로:11.8km/ℓ) | CO₂배출량:172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875kg | 자동8단(4등급) ▶ 2.5T-GDI RWD 19인치(스포르츠패키지):복합9.8km/ℓ(도심:8.5km/ℓ, 고속도로:11.8km/ℓ) | CO₂배출량:172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895kg | 자동8단(4등급) ▶ 2.5T-GDI RWD 21인치:복합9.7km/ℓ(도심:8.4km/ℓ, 고속도로:11.6km/ℓ) | CO₂배출량:174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915kg | 자동8단(4등급) ▶ 2.5T-GDI AWD 18인치:복합9.7km/ℓ(도심:8.4km/ℓ, 고속도로:11.6km/ℓ) | CO₂배출량:174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930kg | 자동8단(4등급) ▶ 2.5T-GDI AWD 19인치:복합9.4km/ℓ(도심:8.2km/ℓ, 고속도로:11.4km/ℓ) | CO₂배출량:180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940kg | 자동8단(4등급) ▶ 2.5T-GDI AWD 19인치(스포르츠패키지):복합9.4km/ℓ(도심:8.2km/ℓ, 고속도로:11.4km/ℓ) | CO₂배출량:180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960kg | 자동8단(4등급) ▶ 2.5T-GDI AWD 21인치:복합9.0km/ℓ(도심:7.9km/ℓ, 고속도로:10.8km/ℓ) | CO₂배출량:187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960kg | 자동8단(5등급) ▶ 2.5T-GDI AWD 21인치(스포르츠패키지):복합9.0km/ℓ(도심:7.9km/ℓ, 고속도로:10.8km/ℓ) | CO₂배출량:187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980kg | 자동8단(5등급) ▶ 3.5T-GDI RWD 19인치:복합8.9km/ℓ(도심:7.8km/ℓ, 고속도로:10.9km/ℓ) | CO₂배출량:189g/km | 배기량:3,470cc | 공차중량:1,950kg | 자동8단(5등급) ▶ 3.5T-GDI RWD 21인치:복합8.5km/ℓ(도심:7.5km/ℓ, 고속도로:10.1km/ℓ) | CO₂배출량:199g/km | 배기량:3,470cc | 공차중량:1,970kg | 자동8단(5등급) ▶ 3.5T-GDI RWD 21인치(스포르츠패키지):복합8.5km/ℓ(도심:7.5km/ℓ, 고속도로:10.1km/ℓ) | CO₂배출량:199g/km | 배기량:3,470cc | 공차중량:1,990kg | 자동8단(5등급) ▶ 3.5T-GDI AWD 19인치:복합8.5km/ℓ(도심:7.5km/ℓ, 고속도로:10.2km/ℓ) | CO₂배출량:199g/km | 배기량:3,470cc | 공차중량:2,015kg | 자동8단(5등급) ▶ 3.5T-GDI AWD 21인치:복합8.3km/ℓ(도심:7.3km/ℓ, 고속도로:9.8km/ℓ) | CO₂배출량:205g/km | 배기량:3,470cc | 공차중량:2,035kg | 자동8단(5등급) ▶ 3.5T-GDI AWD 21인치(스포르츠패키지):복합8.3km/ℓ(도심:7.3km/ℓ, 고속도로:9.8km/ℓ) | CO₂배출량:205g/km | 배기량:3,470cc | 공차중량:2,055kg | 자동8단(5등급) ▶ 3.5T-GDI AWD 21인치(스포르츠패키지, 섀미):복합8.3km/ℓ(도심:7.3km/ℓ, 고속도로:9.8km/ℓ) | CO₂배출량:205g/km | 배기량:3,470cc | 공차중량:2,055kg | 자동8단(5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제네시스는 자정/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법정시한 이틀 남기고… 최저임금 논의, 25일 본격화

최임위 25일 제5차 전원회의

도급제 미적용 논의에 보름 소요
勞, 차별 적용 심의 자체 거부해
7월이나 최저시급 인상을 다룰듯
사실상 법정심의기한 준수 어려워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가 법정 심의기한 이틀 전인 25일에야 시작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법정 심의

기한을 못 지키게 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원회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4차 회의까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도급제 등 특례'를 논의했으나, 현재 제출된 자료로 논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급제 등 특례 논의에만 보름 가까이 소모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다음 전원회의인 25일부터 곧바로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시작

돼도 법정 심의기한인 27일 이전 결정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여기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결국,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은 경영계의 오랜 숙원과제 중 하나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모든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차 회의에서는 “지불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지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며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4차 회의에서 “남은 법정 심의기한을 고려해 업종별 차별 적용 논의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 진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저시급으로 불리는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업종별 구분 여부가 정리된 뒤에야 가능하다. 해당 논의가 5~6차 회의까지 늘어지면,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7월부터나 가능하다.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올해도 합의보단 공익위원 중재, 표결로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1.42%(140원) 이상 인상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삼겹살, 대형마트 돼지고기 매출 절반

삼겹살이 대형마트 돼지고기(돈육) 매출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16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따르면 삼겹살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대형마트 돼지고기(돈육) 매출에서 45%를 차지했다.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 내 진열대에 삼겹살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역동경제 로드맵 전면… 자영업 구조개혁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경기 부진 때마다 반복적 위기 겪어
폐업한 경우 등엔 근로자로 취업 지원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장기 전략과 어젠다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전면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남은 하반기에 달성할 단기적인 과제보다는 앞으로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얘기다. 특히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의 '출구 전략'이 핵심 과제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말~1월 초, 6월 말~7월 초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 진단과 전망, 한 해 또는 남은 하반기 간 추진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올해 하반기 발표에서는 중장기 전략과 과제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우선 제시하고, 하반기 달성을 위한 단기적인 과제를 덧붙이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역동경제는 최상

목<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경제정책 아젠다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춰 경제 역동성을 살리는 취지다. 성장과 사회 이동성 간 순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구조를 지향한다.

향후 3년간 실천 과제와 지향점이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앞서 정부는 밑그림이 되는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지난달 초부터 이달까지 연이어 발표했다.

조만간 제시될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한 경쟁력, 구조적 출혈 경쟁 등으로 경기가 부진할 때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600만 자영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9.5%)은 전년보다 0.8%포인트(p) 상승하며 10%에 육박했다.

반복되는 자영업의 위기 뒤에는 이른바 '묻지마 창업'이 빚은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그로 인한 출혈 경쟁 등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미국(6.6%), 독일(8.7%), 일본(9.6%) 등 주요 선진국의 2~3배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경쟁력이 낮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런 정부 방침에는 최근 고용시장 호조세가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0%를 기록하며 198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5월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경제 전반에 고용 여력이 있을 때 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업 유지를 원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경제 위기 때마다 일회성으로 이뤄지던 자영업 현금 지원은 최소화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플랫폼 산업이 커지면서 심화한 '자영업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한수원 사장 올 세번째 체코行 ‘30兆 체코 원전’ 수주 총력전

내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
가격 경쟁력 우위… 佛과 2파전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 결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체코 원전건설 수주를 만나 한국의 원전 수주 의지와 역량을 알리는 등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한수원은 황주호 사장이 1월 체코 언론대상 사업현황 설명회와 4월 최종 입찰서 제출에 이어 이달 12일 올해 세 번째로 체코를 찾아 수주 활동을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체코는 두코바니에 2기, 테펠린에 2기 등 총 4기의 원전 건설을 계획 중으로 2029년 착공해 2036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최소 30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수원과 프랑스의 전력공사(EDF)의 양자 대결 구도로 체코 정부는 다음 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지만, 이번이 없는 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종 사업자로 확정된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국가이기 때문에 원전을 제외하더라도 협력과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고, 우리는 가격 경쟁력과 계획 기간 안에 원전을 완공하는 공기 관리 능력이 우위에 있다. 만

약한국이 수주한다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에 원전을 수출하게 되는 것은 물론, 커지는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까지 확보하게 된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황 사장은 12일(현지 시간) 체코를 찾아 산업부장관이자 신규 원전건설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요제프 시켈라(Jozef Sikela) 장관을 만났다. 13일에는 체코 현지 언론 대상 미디어 브리핑을 열어 한수원의 우수한 원전 건설 역량을 알리는 등 우호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어 한수원은 14일 원전건설 예정 인근 지역인 트레비치를 찾아, 주요 인사를 만나고 7년간 후원 중인 트레비치 아이스 하키팀의 후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특히 한수원은 12~13일 한수원이 체코에 제시한 노형인 'APR1000'의 노심시뮬레이터를 체코공대에 전시하고, 체코공대와 원전 운영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부 커리큘럼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등 원전 기술 교류 및 연구 협력 확대도 약속했다. 황 사장은 “한수원은 탁월한 건설 역량 및 사업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체코 신규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3년만에 美달러 외평채…“우량 투자자 유치”

5년 만기·13억달러 한도로 발행

정부가 조만간 미국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한다.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투자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외평채는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말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자국 통화 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외환을 매매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앞서 정부는 14일 KDB 산업은행, bank

오브아메리카(BofA), 씨티(Citi), 크레디 아그리콜(Credit Agricole),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 투자은행(IB) 5곳을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대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에는 13억 달러 한도의 5년 만기 달러채가 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발행은 2021년 이후 3년 만의 미국 달러화 채권 발행으로, 그간 중단됐던 채권 발행을 다시 이어감으로써 우리나라가 ‘정기적인 채권 발행자’의 지위를 확립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발행에서 처음부터 목표 금리를 명확히 제시해 안정적인 투자를 중시하는 선진화된 발행방식을 도입, 우량한 SSA 투자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우량투자자들의 관심이 국내기관 채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란 분석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G7, 북·중·러 軍협력 규탄... ‘올림픽 휴전’ 만장일치 지지

정상회의 공동성명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강화를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들은 파리 올림픽 기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하자는데 만장일치로 지지하는 동시에 북한과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15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G7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탄도 미사일 수출을 비롯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이 늘고 있다”며 “이를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모스크바로의 이종용도 물품이전

러 동결자산, 우크라 지원 서명 “푸틴에 러 지지 않는다는 것 상기”

우크라 평화회의 미·중·러 불참 “진정한 돌파구 마련 희망 사라져”

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G7은 유럽과 미국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500억 달러(약 69조 원)를 해제해 우크라이나를 위해 사용하는 계획에 서명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리가 러시아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열리는 파리 올림픽 기간 휴전하

G7 정상회의 성명 주요 내용

- 1 러시아 거래에 관여하는 해외(중국 등) 금융 기관으로 제재 확대
- 2 민군 이중용도 물품 러시아 이전 중단 요구
- 3 러시아 동결자산 500억달러 우크라이나에 용자
- 4 중국의 반시장 관행, 주요 광물 수출 관리에 우려 표명
- 5 중국의 남·동중국해 해양 진출 우려 표명

※출처 : 니혼게이지아신문

는 것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G7은 “모든 국가가 개별적으로나 집단으로 올림픽 기간 휴전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G7 정상회의 의장을 맡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의 요청이었고 만장일치로(성명)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월 “우크라이나와 수단, 중동 등지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올림픽 기간 멈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마주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림픽 휴전을 강조했다. 당시 시 주석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올림픽 기간 전 세계의 휴전을 요청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는 휴전이 우크라이나를 재무장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반발했고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에 유리한 일이라며 휴전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푸틴 대통령은 이번 주 돌연 휴전 조건으로 자국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의 철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멜로니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휴전 제안은 ‘프로파간다(선전)’”라며 일축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아돌프 히틀러 메시지와 똑같다”고 비난했다.

한편 G7 정상회의에 이어 스위스에서 이날부터 양일간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개최됐다. 57개국에서 정상급 인사가 참석했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정상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미 이번 회의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AP통신은 “수십 명의 세계 정상들이 스위스에 모여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가져올 방법을 논의하지만, 러시아의 부재로 인해 진정한 돌파구에 대한 희망은 사라졌다”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모든 점령지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 대규모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日, 빈집 늘자... 부동산 가치 3.9兆엔 증발

단독주택 중심 5년간 36만호 증가

일본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국가 차원의 경제적 손실도 커지고 있다고 16일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 ‘전국 빈집대책 컨소시엄’이 도쿄대 부동산 혁신연구센터와 함께 지난해 총무성의 주택·토지 통계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매각이나 임대 등의 목적 없이 거주 가구의 장기 부재로 방치된 빈집이 385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 약 36만 호 증가한 셈이다. 장기 방치된 빈집의 70% 이상이 단독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빈집은 주변 반경 50m 이내 지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전국 빈집대책 컨소시엄은 지적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방치된 빈집 영향으로 지가가 하락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약 3조9000억 엔(약 34조280억 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수치가 지가 영향에 대해서만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실제 부동산 가치 하락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단독주택 특성상 목조건물에 정원

을 가꾸는 경우가 많은데, 빈집으로 방치되면 해충으로 집이 금방 낡게 된다. 또한, 빈집 일대 치안이 악화하면서 입주 희망자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진 아파트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면서 소유자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아파트 전체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유 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면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이 지연돼 아파트 수리나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회사 도쿄칸테이의 이데다 케시 수석연구원은 “손실액이 앞으로 급속하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는 지역은 주로 노인 인구가 많은 ‘빈집 예비군’인데, 빈집 예비군도 소유자 사망 후 상속 포기 등으로 방치돼 지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1인 가구 영향으로 인구 감소에도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는 2030년에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 총 수요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빈집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스위프트 ‘공연의 힘’... 英 금리인하 제동거나

숙박료 등 물가 0.15%p 상승 효과

세계적인 팝가수 미국 테일러 스위프트의 기록적인 ‘에라스 투어’ 공연 인기가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이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고 미국 투자전문매체 배런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투자은행 TD증권의 루카스 크리스찬 글로벌 거시 전략 책임자는 전날 분석 메모에서 “스위프트가 8월 런던에서 펼칠 마지막 영국 콘서트에 수십만 명의 열성팬이 몰려들면서 잉글랜드은행이 9월 금리인하를 연기해야 할 정도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잉글랜드은행은 8월 금리를 내리며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달 인플레이션으로 9월에는 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크리스찬은 “호텔 숙박료 급등만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서비스 인플레이션율을 최대 0.3%포인트(p) 올려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0.15%p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잉글랜드은행이 통화정책 경로를 재고할 정도로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잉글랜드은행은 현재 16년래 최고치인 연 5.25% 금리를 8월에 인하할 것이 유력하다. 물가상승률 최근 잉글랜드은행 목표치 2%에 수렴하는 추세라고 여겨진 것이 기반이 됐다. 그러나 스위프트의 최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의 공연으로 호텔·레스토랑·항공권 등의 가격이 심상치 않게 뛰었다. 기존에도 스위프트의 공연이 창출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스위프트플레이션’,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용어가 탄생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이진영 기자 mint@



검게 물든 싱가포르 해변

싱가포르 유명 관광지 센토사섬 해변이 검은 기름띠로 뒤덮여 폐쇄된 가운데 16일(현지시간) 근로자들이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센토사 인근 항구에서 14일 오후 네덜란드 선적 조출선이 정박해 있던 싱가포르 선적 유조선과 충돌해 기름이 유출됐다. 아직 기름이 얼마나 유출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싱가포르/AP연합뉴스

가상자산 스타트업 펀딩, 10년 만에 1000억달러

FTX 사태·가격 하락 등 악재 극복

스타트업 발행 토큰, 투자 유치 일조

“가상자산 산업 M&A·IPO 가속화”

가상자산(가상화폐) 스타트업 펀딩 규모가 10년 만에 1000억 달러(약 139조 원)를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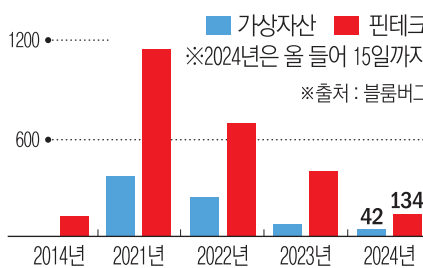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가상자산 전문 업체 디파이라마를 인용해 가상자산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 규모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10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별도 집계에서 2017년부터 누적 투자액이 950억 달러를 웃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상자산 스타트업 펀딩은 한때 가상자산 가격 하락과 FTX 사태가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FTX 사태 이후 타이거 글로벌과 테마섹 등 글로벌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대부분 발을 뺐고, 그 결과 가상자산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액은 2021년 이후 급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스타트업들이 발행한 토큰이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벤처 투자자들은 투

글로벌 디지털 스타트업 펀딩

(단위 : 억달러) ※ 현지시간 기준



자 초기 단계에 조달 계약금의 일부를 토큰으로 구매해 왔다. 토큰은 코인과 함께 가상자산으로 불리지만, 둘 사이엔 차이가 있다. 흔히 알려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은 자체 블록체인을 가진 고유한 가상자산이지만, 토큰은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가상자산이다. 이미 생성된 블록체인에서 생성되는 토큰이 코인보다 프로세스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높아 거래가 신속하게 가능하고 단기 수익을 내기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에셋캐피털매니지먼트의 리처드 겔빈 공동 창업자에 따르면 일부 유동 토큰의 경우 벤처 투자자의 수익 주기를 기존 5~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강점은 과거 코인 투자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L1디지털의 레이 힌디 최고경영자(CEO)는 “가상자산 베티ంగ으로 손실을 본 기관들은 시장에 너무 늦게 들어왔거나 투자에 현혹됐던 탓”이라며 “그건 잘못된 투자였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다시 강세를 보인 점도 펀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연초 4만 달러 중반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3월 7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달 들어서도 6만~7만 달러 선을 오가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공개(IPO) 기대감도 번지고 있다. 르네상스 캐피탈의 매슈 케네디 투자전략가는 “가상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 앞으로 1년 반 동안 사상 최대 규모의 관련 IPO가 나올 수 있다”며 “최대 15개의 가상자산 기업이 상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인베이스의 홀리 테즈와니 벤처 부문 이사 역시 “가상자산 산업이 성숙해질수록 인수·합병(M&A)과 IPO 활동이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승부사’ 윤영준, 해외 수주 잭팟… 현대건설 新르네상스

37년 건설통… ‘위기를 기회로’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마주하면 다리를 세우라.”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위기에 강한 승부사다. 올해 초 신년사에서 인용한 고사 성어 ‘봉산 개도 우수 가교’처럼 대내외 위기를 돌파해 기회로 만들고 나아가 성장 동력으로 바꾸는 능력이 탁월하다.

윤 사장은 취임 이후 수익성 중심의 사업 재편과 고급 브랜드 안착, 불가리아 원전과 같은 굵직한 해외 수주를 이끌며 현대건설의 ‘르네상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윤 사장은 1987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사업관리실장과 주택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37년간 다양한 실무·현장 경험을 쌓은 말 그대로 ‘건설업계 통’이다. 2021년 초 현대건설 사장에 오를 때만 해도 주택 사업 부문 전문가 이미지가 강했지만, 취임 이후 해외사업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내며 건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형 최고경영자(CEO)로서의 면모를 뽐내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악화로 건설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현대건설이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며 건설업계 ‘만행’으로서 탄탄한 입지를 지키고 있는 것도 해외사업 덕분이다. 현대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가스전 1단계, 사우디 네옴 러닝 터널,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등 해외 대형현장 공정이 본격화하고 사한 프로젝트 등이 1분기 실적에 포함되면서 매출과 영업 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현대건설의 1분기 매출액은 8조5453억 원, 영업이익은 2509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41.7%, 44.6% 늘었다. 매출액은 올해 연간 목표인 29조7000억 원의 28.8%에 해당하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시장 예상치인 1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수주는 전년 동기보다 60.3% 증가한 9조5177억 원을 기록하며 올해 목표치인 29조 원의 32.8%를 채웠다.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가스 처리시설

2단계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가 더해진 해외 수주액이 5조4539억 원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29조6541억 원, 영업이익은 7854억으로 각각 39.6%, 36.6% 증가했다. 해외 수주액은 12조8684억 원으로 전년보다 80% 확대됐다.

해외사업 질주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2월 총 사업비 18조 원이 넘는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대형 원전 해외시장 진출이란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사우디 가스전 등 대형 프로젝트 가속

1분기 영업이익 45% 늘어 2500억원

18조 불가리아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윤 사장은 주택사업 부문 전문가답게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의 압도적 지위도 공고히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올해도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는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반기까지 5개 사업지에서 3조3060억 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6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1위 자리에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윤 사장은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인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현장을 찾아 ‘명실상부 여의도 최고의 랜드마크로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수주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대표이사가 수주 경쟁이 벌어지는 사업장을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윤 사장의 현장 방문은 수주에 집중성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가 나왔고 현대건설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따냈다.

윤 사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먹거리 확보 전략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EPC(설계·조달·시공)는 물론이고 초기 사업 개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사업 역량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전북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서 국내 최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건설에 들어갔다.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공급이 가능한 플랜트로 부안군의 에너지자립 도시 구축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현대건설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총괄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 등을 담당한다.

지난해 말에는 한국중부발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손잡고 미국 태양광 발전 사업 공동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개발단계부터 건설, 운영 등 전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현재 현대건설과 KIND는 미국 텍사스주 중부 콘초카운티 지역의 459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개발에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중부발전은 미국 옐라타 태양광 발전사업, 콘초밸리 태양광 발전사업을 개발·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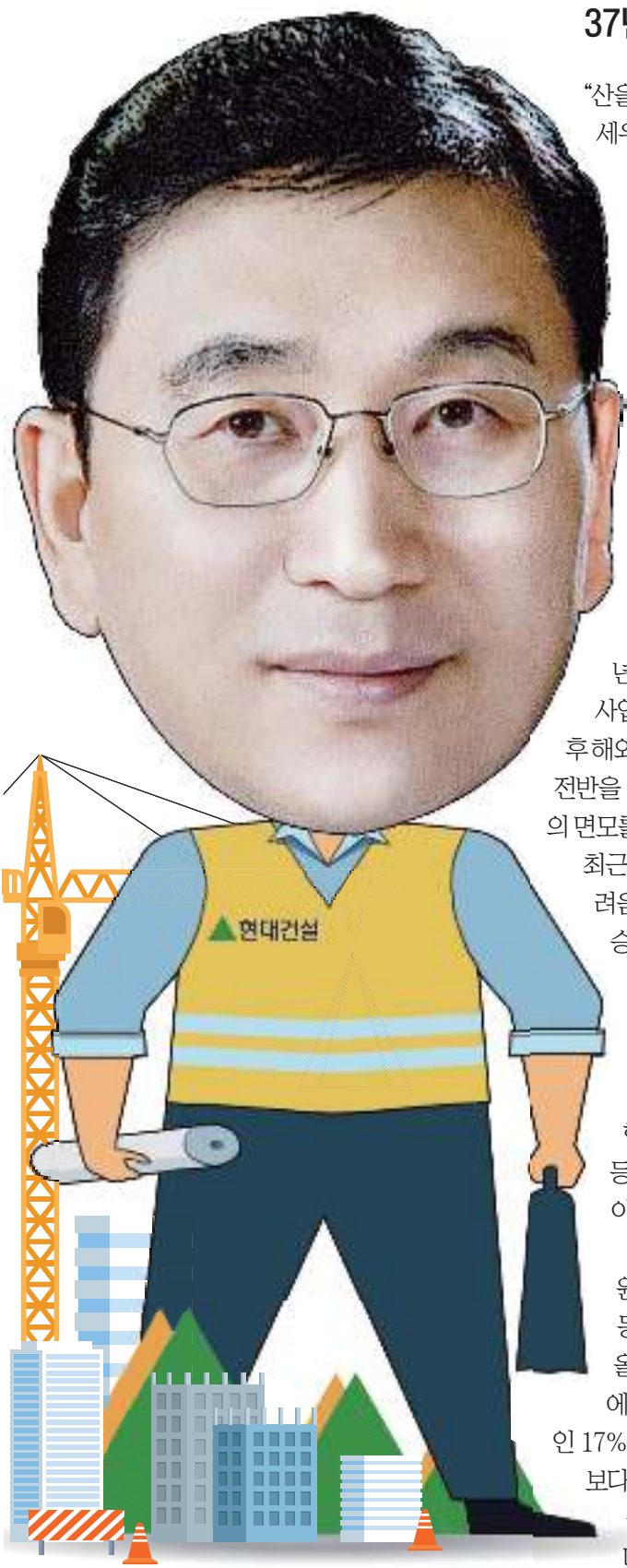
윤 사장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 및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지난해 정관에 추가하고 전문조직을 신설하는 등 전력 중개 거래 분야에서의 기틀을 닦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3월 글렌몬트디앤디솔라홀딩스와 태양광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전력 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네트워크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현대건설은 현대모비스 등 재생에너지 구매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더 많은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그룹사를 포함한 국내 주요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IT 기업 식스티헤르츠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국내 최초로 PPA 거래 자동화 솔루션이 탑재된 전력거래 자동화 IT 플랫폼 및 통합발전(VPP) 서비스 개발에도 나섰다.

미국과 영국 등 글로벌 톱티어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영국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착수하는 등 원전사업 경쟁력 강화도 지속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에너지 밸류체인 확대, 고부가가치 해외사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형원전을 포함한 SMR,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시설 등 원자력 전반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보적 사업 역량을 인정받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비경쟁·고부가가치 해외 수주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



물[水] 오르다

산업용 수처리 전문기업에서 **종합환경기업**으로
대한민국 대표 환경기업에서 **글로벌 환경기업**으로



초순수 생산



토털 수처리 솔루션



폐수재이용/해수담수화



연구 및 기술개발



한성크린텍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 빌딩 6층, 17층 02-6371-3900 hasco@hscleantech.com

관계사

대양엔바이오주

ES Water Solution

E CLEAN WATER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 성공할 CEO를 모십니다

NH농협은행의 전문컨설턴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과 함께 당신의 성공을 앞당기세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경영전문가 | 재무전문가 | 마케팅전문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전문 컨설팅 팀**



NH기업경영컨설팅
중소기업 대상 무료 기업경영전문컨설팅



NH소상공인(자영업자)컨설팅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무료 전문컨설팅



NH기업스마트뱅킹
앱스토어



NH기업스마트뱅킹
플레이스토어

NH농협은행 컨설팅 프로그램은 NH기업스마트뱅킹 또는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관리부서 : NH농협은행 중소기업고객부

NH농협은행

조리로봇만 보셨죠... 와인 따르고 안주 추천도 ‘척척’

푸드테크시장 뛰어든 로봇업계

칵테일 제조·와인 디캔팅 작업...

고객 기분에 따라 동작 달라져

두산, 日서 믹스마스터 ‘무디’ 선보

한화호텔 ‘소믈리에 비노봇’ 투입

레인보우 ‘서빙로봇’ 기능 발전



두산로보틱스는 최근 일본 아사히 도쿄 팝업스토어에서 믹스마스터 ‘무디(Moodie)’를 선보였다. 출처 두산로보틱스 인스타그램



김슬기 더 플라자 소믈리에의 디캔팅과 브리딩 모션을 재현한 한화로보틱스의 비노봇. 사진제공 한화로보틱스

로봇업계가 푸드테크(Food-Tech)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다. 주로 조리 종사자들의 작업을 돕는 역할에 그쳤던 로봇이 이제는 칵테일 제조, 와인 디캔팅, 음식 제조 등 사람도 어려운 작업을 수행하며 외식 산업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협동로봇 시장 선두주자 두산로보틱스는 최근 일본 아사히 도쿄 팝업스토어에 믹스마스터 ‘무디(Moodie)’를 선보였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무디가 고객의 표정을 분석해 감정을 판단하고 술과 함께 안주를 제공한다. 기분에 따라 동작이 달라지는 로봇과 함께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무디는 비전(Vision) 기술을 통해 사람의 표정에서 감정을 인식한 뒤, 감정에 어울리는 칵테일을 추천하고 최적의 제조법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찾아 칵테일을 제조한다. 최대 4명의 표정을 동시에 인식해 얼굴 표정과 미세한 움직임, 볼때함, 놀람 등 7개의 감정으로 분류한다.

무디에는 사람 표정을 통해 감정을 인식하기 위한 학습, 이러한 감정 인식의 정확성을 높이는 부분, 감정 상태에 따라 주

천할 레시피를 만들면서도 맛을 보장해야 하는 부분 등 다양한 부분에 생성형 AI를 적용했다.

한화로보틱스는 식음료(F&B)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동선 부사장이 주도해 유통·레저와 푸드테크 등의 시너지 창출을 모색 중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특급호텔인 더 플라자 호텔 김슬기 소믈리에의 기술을 로봇에 주입했다. ‘소믈리에 비노봇’은 소믈리에의 디캔팅(불순물 제거를 위해 와인을 다른 용기에 옮겨담는 것)과 브리

딩(와인을 돌리며 공기 접촉) 모션을 완벽하게 재현했다. 비노봇이 따라주는 와인을 시음한 고객들도 일정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한 브리딩 덕분에 와인 풍미가 잘 살아난다는 평가다.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직원 고용이 어려워지면서 서빙 로봇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기존 서빙 로봇이 입력된 주행로로 이동해 음식을 테이블에 가져다주는 데 그쳤다면 호출 벨 연동, AI 자율주행 등 점차 발전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자체 개발 AI를

도입해 임대료를 크게 낮췄다. 안정적인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위해 특허 출원한 그리드프리슬램(Grid-Free SLAM) 기술을 적용해 위치 정밀도를 향상했다. 대화형 인터페이스(UI)를 통해 초보자도 손쉽게 세팅 및 운영이 가능하다. 직원용 호출 벨 연동 시스템 및 다수의 서빙로봇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 모드까지 소상공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푸드테크 확산에 따라 시장 규모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5542억 달러(약 665조 원)로 2017년(2100억 달러) 대비 연평균 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푸드테크 시장 규모도 61조 원으로 연평균 31% 성장했다. 푸드테크 관련 로봇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로봇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한 해외 수입 로봇의 경우 백도어, 부실 애프터서비스(AS) 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기술, 부품 국산화로 경쟁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

대기업 5곳중 3곳 “ESG 공시 의무, 2028년 이후 걱정”

상의·한경협 등 경제단체 공동조사
“준비 쉽지 않아... 공시부담 줄여야”

최근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KSSB)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적정 시기를 2028년 이후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는 최근 공동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12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 관련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ESG 공시 의무화 도입 시

에 대해 2028년 이후(2028~2030년)가 되어야 한다는 기업이 58.4%로 나타났다 16일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 같은 결과는 아직 많은 기업이 공시 의무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많은 기업이 준비되는 시점인 2029~2030년경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SG 공시 의무화 방향에 대해선 ‘거래소 공시’(38.4%)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율 공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25.6%였고, ‘사업보고서 내 공시’로 해야 한다는 기업은

2.4%에 불과했다.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가리키는 ‘Scope3’ 탄소 배출량 공시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기업이 ‘반대한다’(56.0%)고 답했다.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40.0%에 달했다. ‘Scope3 공시에 찬성한다’는 기업은 1.6%에 불과했다.

Scope는 1, 2, 3으로 나뉘는데 Scope1은 기업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탄소 배출을, Scope2는 전기·난방 등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 탄소 배출을 말한다. Scope3은 협력업체, 하청기관, 공급망 등 가치사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한다. Scope1·2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중대성 판단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66.4%)는 기업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SG 공시 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연결기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회계 공시도 수십 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착되어 온 걸 감안하면 더 많은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 ESG 공시를 기업들이 단기간에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준비 기간과 함께 기업에 부담되는 공시항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삼성전자는 5월 한 달간 가정용 시스템에어컨 판매가 작년 5월보다 25%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직원들이 시스템에어컨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때 이른 불볕더위에 시스템에어컨 ‘불티’

삼성, 5월 판매 작년보다 25% ‘쑥’

삼성전자는 5월 한 달간 가정용 시스템에어컨 판매가 작년보다 25%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5월 누적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이상 증가했다. 시스템에어컨은 공간 활용도가 높고 인테리어에도 뛰어나 디자인·공간 활용 등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아졌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기존 시스템에어컨은 분양·입주·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에만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도 최대 6대까지 8시간 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판매가 늘었다. 거주 중인 집에 가정용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한 건수는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라인업인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도 선보이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2024년형 비스포크 인공지능(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라인은 레이더 센서를 탑재해 맞춤형 AI 기능과 고급스러운 소재,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문정 기자 kangmj@

〈리튬메탈〉

SK온, 상온 구동 배터리용 고분자 전해질 개발

고속충전 성능·화재 안전성 확보

SK온이 상온에서도 구동할 수 있는 리튬메탈 배터리용 고분자 전해질 공동개발에 성공했다. 고체 배터리 성능 개선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SK온은 고(故) 쿿이너프 교수의 제자인 하디카니(Hadi Khani) 교수 연구팀과 신규 고분자 전해질인 ‘SIPE(single-ion conducting polymer electrolyte)’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쿿이너프 교수는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을 2배로 늘린 배터리 선구자다. 2019년 97세에 노벨화학상을 받아 최고령 노벨상 수상 기록도 세웠다. 2020년부터 SK온과 리튬메탈 배터리를 구현하기 위한 ‘고체 전해질’ 공동 개발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6월 별세 후 제자인 카니 교수가 연구팀을 이끌고 있다.

해당 연구는 전기화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일렉트로케미컬 소사이어티(J. Electrochemical Society)’에 게재됐다.

고분자 전해질은 가격이 저렴하고 제조가 쉬워 차세대 고체 배터리 소재다. 하지만 산화물계, 황화물계보다 상온에서 이온전도도가 낮은 게 단점이었다.

실험 결과 SIPE를 적용한 배터리는 저속 충·방전(0.1C) 대비 고속 충·방전(2C) 시 배터리 방전 용량이 77%로 유지됐다. 고체 전해질은 이온전도도가 낮아 고속 충전 시 방전 용량 저하가 두드러지는데, 이를 최소화한 셈이다. 이 밖에도 SIPE는 높은 기계적 내구성을 갖춰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열적 안정성이 우수해 250℃ 이상 고온에도 견딜 수 있다. 차세대 복합계 고체 배터리에 적용할 경우 충전 속도와 저온 성능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욱 기자 toto@

CXL·HBM 등 AI 반도체 생태계 확장 가속

‘만년 3위’ 마이크론의 맹추격... 삼성·SK 위협

레드햇·슈퍼마이크로 등 검증시험
HBM 제품 전력효율 월등히 뛰어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만년 3위’로 여겨지던 마이크론이 컴퓨터익스프레스링크(CXL),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최근 CXL 2.0을 지원하는 자사 제품 ‘CZ120(사진)’ 메모리 확장 모듈 관련 생태계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마이크론은 최근 레드햇, 슈퍼마이크로 등 굵직한 정보기술(IT) 기업들과 검증 시험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8월 CXL 2.0을 지원하는 CZ120 메모리 확장 모듈을 공개하고 샘플을 고객사에 제공해왔다. 하반기 인텔이 CXL 2.0을 지원하는 CPU 5·6세대 서버용 제온 프로세서를 출시하면 시장이 본격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마이크론의 HBM3E(5세대 HBM) 제품이 전력 효율 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품 대비 30%가량 좋다는 평가도 나온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실리콘관통전극(TSV)으로 연결한 차세대 메모리다.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기 때문에 전력 소모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후발이지만 성장 속도가 빠르다.

박민용 기자 pmw7001@

“4조 자금 조달” 현대차… 세계 3위 印 시장 공략 가속

IPO 나서는 인도 법인

현대자동차가 인도법인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했다. 현지 증시 상장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자금도 수혈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에 등극한 인도 시장의 공략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차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친환경차 시장을 겨냥, 전동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대차의 현지 전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인도법인 상장을 통해 최대 30억 달러(약 4조 원)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조달한 자금으로 인도 사업 확대에 더욱 힘을 실을 전망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인도를 그룹

印 정부 강력한 전동화 정책 부응

조달자금 대부분 공장 증설 투자 기아 포함 100만대→150만대로 올해 말 SUV 전기차 첫 생산

의 미래 핵심 사업장으로 점찍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8월에 이어 올해 4월 약 8개월 만에 인도를 방문해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등 인도 사업 확대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인도는 자동차 시장의 ‘빅마켓’으로 떠올랐다. 세계 최대 인구대국인 인도는 지난해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내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4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 소득이 늘면 서 자동차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인도 자동차 시장 규모는 500만 대로 중

국과 미국에 이어 견고한 3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를 중심으로한 친환경차의 성장이 가파르다. 인도자동차협회(SIAM)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의 전기차 판매량은 87만6000여 대로 2022년 대비 100% 성장했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승용차의 30%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강력한 전동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시장에서 일본 스즈키의 인도 합작사인 마루티스즈키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인도에서 역대 최대인 108만 대 이상을 생산했다. 2021년부터 생산량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 중이다. 올해 1분기 현대차-인도법인은 매출액 2조7675억 원, 순이익 2673억 원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3.2%, 순이익은 21% 늘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자동차 시장의 성장 세에 맞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 대부분도 인도 현지 생산 능력 증설을 위해 쓰일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에 20만 대 이상 규모의 신공장 건설을 진행 중이며, 기아는 올해 상반기 생산능력을 43만1000대로 확대한다. 푸네 공장은 지난해 미국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인수한 곳으로 스마트 공장으로 변신 중이다. 내년 하반기 푸네공장이 완공되면 현대차는 첸나이공장(82만4000대)과 푸네공장을 주축으로 100만 대 생산체제를 구축한다. 기아까지 합치면 인도에서 약 1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특히 현대차는 인도 정부의 전동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말 첸나이 공장에서

첫 현지생산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선보이며 인도 전기차 시장 성장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2030년까지 5종의 전기차 모델을 시장에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기아도 내년부터 현지에 최적화된 소형 전기차를 생산하고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차례로 공급한다.

지난 4월 정의선 회장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도 전동화 전략을 점검했다. 정 회장은 당시 현지 직원들과 전동화 본격 추진, 인도 100만 대 양산체제 구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IPO는 대규모 양산체제 구축과 전동화 전략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상장을 통해 현지 기업이 라는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투자 확대를 통해 긍정적 이미지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강문정 기자 kangmj@

경기 침체 돌파구 찾자… 재계, 줄줄이 전략회의 돌입

삼성전자 18일부터 사업부별 개최 SK, 28일 사업 포트폴리오 재점검 현대차 이달말 해외본부장 회의

국내 주요 기업이 전략회의를 열고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8일 모바일경험(MX) 사업부를 시작으로 19일 생활가전(DA)·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20일 전자 등의 순으로 글로벌 전략협의회를 개최한다.

전영현 부회장이 부분장을 맡은 뒤 처

음 열리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글로벌 전략회의는 25일 화성사업장에서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지난해 반도체 사업이 15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적자를 낸 데다,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등이 부진하며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최근 부문장까지 전격 교체된 만큼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업부별 중점 추진 전략과 지역별 목표 달성 전략, 고객 중심 멀티 디바이스 경험(CX·MDE)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한다.

삼성전자는 매년 6월과 12월 각 부문

장 주재하에 주요 경영진과 해외법인장 등이 참석하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눈다.

SK그룹 경영진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포함한 ‘조직 리밸런싱’을 집중 논의한다. 그룹 내 만연한 중복 투자와 사업을 정리해 효율성을 높이는 등 포트폴리오 재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SK그룹은 28일부터 1박 2일간 경기 이천시 SKMS연구소에서 경영전략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수펙스추구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총출동한다.

7일 깜짝 인사 발표를 통해 SK이노베이션 수석부회장에 오른 최재원 부회장을 중심으로 배터리 사업을 살리기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매년 상·하반기 국내서 두 차례 해외권역본부장 회의를 개최한다. 자율적 토론 방식으로 경영 현안을 논의하며 글로벌 전략을 수립한다.

올해 상반기 해외권역본부장 회의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1주일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와 기아 두 회사 CEO 주재 아래 권역본부장들과 판매, 생산 법인장들이 참석해 주요 시장별 전략을 점검한다.



2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13일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LG그룹은 구광모 회장 주재로 전략 보고회를 열고 계열사와 사업본부의 중장기 전략방향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LG그룹은 상반기에 전략 보고회, 하반기에 사업 보고회를 연다.

이동욱 기자 toto@

“가덕도신공항 공사, 첨단 발파 준비 끝”

한화글로벌, 산 깎아서 바다 메우기 3D 스캔 등 스마트 발파 솔루션 적용

(주)한화글로벌부문이가덕도신공항 공사를 위한 첨단·고속 발파 솔루션 준비를 완료했다.

16일 (주)한화글로벌부문은 해외 해양 매립 사례를 연구하고 첨단 발파 기술들을 국내의 대규모 현장에 적용해 자료를 수집하고, 각종 학술 발표와 교류를 진행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비 13조4913억 원이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의 수용 능력 부족을 보완하고 동남부권 항공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국회의 특별법에 따라 건설되는 공항이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사는 가덕도 내 봉우리를 발파, 절취해 넓은 바다를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공기단축을 위한 빠르고 정밀한 발파, 매립 후 부등침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파쇄암석 크기 관리, 폭약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첨단 발파 솔루션이 필수다.

(주)한화글로벌부문은 가덕도신공항 공사를 위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과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 등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스마트 발파 솔루션 플랫폼 ‘HATS(Hanwha As a Total Solution)’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HATS는 디지털 플랫폼상에서 발파 설계, 천공, 장약, 발파 결과 확인,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화약 발파의 주요 공정을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해 발파구역에 대한 스캔을 진행하면 3차원(3D) 지형이 화면에 생성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최적의 발파설계가 이뤄진다. 그리고 설계에 따라 정밀 GPS 센서를 부착한 스마트 드릴링 시스템이 정확한 위치와 각도로 지면에 천공을 진행한다. 이렇게 뚫린 구멍에 사람이 아닌 기계 차량이 화약을 설치하는 기계화 장약 시스템은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면서 정확도와 설치 속도를 높여 공정 효율을 극대화한다. 이 모든 과정은 모두 HATS를 통해 관리된다.

산업용 화약 및 마이닝 솔루션 분야 국내 1위 기업인 (주)한화글로벌부문은 지난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및 화학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세계 5번째, 국내 유일하게 전자뇌관을 자체 개발해 생산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LG전자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문을 연 냉난방공조 솔루션 체험 공간 ‘어나더 한옥’. 사진제공 LG전자

LG전자, 마드리드에 ‘냉난방 공조 체험’ 한옥 운영

LG전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LG전자의 인공지능(AI) 가전과 냉난방공조(HVAC)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는 프리미엄 체험 공간 ‘어나더 한옥’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어나더 한옥은 한국 전통 건축양식의 건물에 LG전자의 고효율 에너지 제품을 채워 100% 에너지 자립을 달성한 공간이다.

LG전자는 에나더 한옥을 기업 간 거래(B2B) 고객 대상 ‘넷제로 쇼룸’으로 운영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선보이고 B2B 고객과의 네

트워킹을 강화하는 B2B 사업 확대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어나더 한옥에는 유럽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씨마브이 R290 모노블록’을 설치해 에너지 소비량을 대폭 줄였다.

전기를 태양광으로 생산해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저장하는 홈 에너지 솔루션을 구현했다. 한옥 내부에는 LG 올레드 예보, LG 퓨리케어 에어로퍼니처, LG 트롬 워시타워 등 다양한 고효율 AI 가전을 설치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HD현대오일뱅크, ANA항공에 ‘지속가능 항공유’ 국내 첫 수출

HD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항공유(SAF) 수출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ANA항공(전일본공수)에서 사용할 지속가능항공유를 일본 트레이딩 회사인 마루베니에 공급한다. 일본이 지속가능항공유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석유공사(KNOC)는 자사의 탱크 터미널에 지속가능항공유를 저장, 선적하며 이 사업에 참여했다.

지속가능항공유는 화석연료가 아닌 폐식용유 등의 바이오 기반 원료로 생산한 친환경 연료다. 항공업계 탄소 감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손꼽힌다. 이번에 생산된 제품은 HD현대오일뱅크의 기존 정유 설비에 석유 기반 원료와 동식물성 바이오 원료를 함께 투입하는 코프로세싱 방식을 활용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항공유 수요의 10%를 지속가능항공유로 대체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일본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도 지속가능항공유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동욱 기자 toto@

“농부 없이도 ‘쑥쑥’… 로봇이 온실 방제·수확까지 맡는다”

탐방기Up 아이오크롭스

AI로 스마트팜 원격 운영

설립 후 매년 2배 넘게 매출 뛰어
2만평 규모 스마트팜 직접 운영
농업·기술자 협업체 제품 고도화
중동 납품 이어 글로벌 영토 공략

“인공지능(AI)기반 재배와 로봇 농작업을 통한 무인 자동화 농장의 구현이 목표로, 농업 생산 분야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기반 기술을 개발·보급·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조진형 아이오크롭스 대표는 최근 서울 시 서초구에 있는 아이오크롭스 본사에서 가진 본지와 인터뷰에서 향후 비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아이오크롭스는 2018년 설립된 애그



조진형 아이오크롭스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테크 스타트업이다. 스마트팜 원격 운영과 AI 기반 스마트팜 통합 솔루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 구체적으로 온실

의 예찰-온반-방제-수확 작업을 수행하는 AI 기반 스마트팜 자율주행 로봇 헤르마이(HERMAI)와 AI 기반 스마트팜 통

합 운영 솔루션 아이오팜(ioFarm), 데이터 기반 농작업 관리 솔루션 에이션(Ation),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센서 및 데이터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 등을 개발한다. 설립 이듬해 아이오팜을 출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0년 네덜란드에서 열린 AGC 세계농업인공지능대회에 출전해 세계 3위를 수상했다.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기계공학 학사·석사 출신의 조 대표는 전공을 살린 창업을 고민하다 스마트팜에 주목했다. 로봇과 AI 등 자동화 기술이 농업 생산의 혁신을 가져오리란 판단 하에 농사 경험을 쌓고자 천안토마토농장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에서 2년 여간 연구에 몰두했고, 이후 ‘디지로그’ 팀을 구성해 세계농업인공지능대회에 출전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당시 팀의 주축 멤버들은 아이오크롭스 초기 공동 창업자로 함께했으며 현재까지 회사를 함께 이끌고 있다.

글로벌은 물론 국내에도 애그테크 스타트업 다수 등장해 저마다의 기술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프로덕트를 기획해 상용화하고 있으나, 이들과 아이오크롭스만의 가장 큰 차이는 직접 온실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스마트팜에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생산해 유통까지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이오크롭스는 2021년 최초 3000평을 시작으로 현재는 2만10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재배 작물은 파프리카와 토마토다.

조 대표는 “현장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업 전문가 직원과 서울 사무실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기술 전문가 직원이 함께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실증함으로써 동종 업계 기업보다 더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실제 아이오크롭스가 제공하는 농작업 관리 솔루션 에이션을 이용하는 스마트팜의 만족도는 상당하다고 조 대표는 말한다. 통상 애그테크 기업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험용 사이즈, 혹은 파일럿 규모의 스마트팜에서 기술 접목을 실험할 수밖에 없는데, 상업용 대규모 재배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는 파일럿 환경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이오크롭스가 주력으로 하는 타겟은 온실 스마트팜이다. 일견 시장이 한정돼 보이나 성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조 대표의 설명이다. 국내 온실 작물은 토마토와 파프리카, 딸기 등이 있으며 각 작물의 시장 규모만 따져도 수조 원을 웃돈다고 한다.

조 대표는 “이상 기후로 농작물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의 영향을 덜 받도록 하는 게 온실이고, 이 시설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스마트팜 관련 기술이라고 보면 재배 작물의 확대 등 시장의 성장은 당연하다”고 예상했다.

아이오크롭스는 설립 이후 매년 두 배를 웃도는 매출 성장세를 보였으며 작년에는 2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도보다 286% 신장한 수준이다. 올해 매출은 이보다는 성장폭이 다소 줄은 40억 원가량의 예상이다. 외형보다 내실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 투자 라운드도 계획하고 있다.

조 대표는 “작년까지 적자가 이어졌으나 올해 예상대로라면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이고, 내년부터는 성장과 내실을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해외로 진출할 계획도 세웠다. 조 대표는 “최근 중동의 스마트팜 민간업체 사우디그린하우스에 에이션을 납품했고, 생육 모니터링 로봇 헤르마이도 납품 준비 중이다. 해외 K스마트팜 기술 수출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모두가 부러워하는

실력을 갖기 위해

1,532시간을 투자했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당신의 투자 문화가 된다

NH투자증권

“청년들 모이는 산업단지 만들 것”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 취임 1년

10년간 3조 투입해 중점사업 추진

#. 1년에 전기 사용료를 25억 원이나 내는 전자부품회사 아모텍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받은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을 통해 1년 전기료를 약 1억5000만 원 정도 절감하게 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기후 환경 대응을 위해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을 보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70개사에 해당 시스템을 보급,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산단공은 13일 인천지역본부에서 ‘산단공 이사장 취임 1년 성과 토크’를 열고 이같이 1년 사업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훈(사진) 산단공 이사장은 1년 동안 의대표적인 성과로 △지역 고도화사업 △디지털 전환 △에너지 △디지털 기반 산업단지 개발 및 특화단지 지원 등 4가지를 꼽았다.

이 이사장은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고 지방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재도약 전략에 따라 산단의 근로·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단 마스터플랜 수립 경진대회’를

추진했다”며 “앞으로 10년간 총사업비 3조 원 규모를 투입해 산단 구조 고도화를 통해 36개 중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지난해 말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통해 단계별(기업 내, 기업간, 산단간) 데이터 공유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별 밀그림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에너지 관련 사업은 산업 현장에서 가장 실증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자급 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이나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 구축사업’ 등은 대표적인 현장사이트 구축 성과들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이사장은 앞으로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비 2766억 원을 투입해 47개 산단에 76개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이사장은 “산업단지 개발 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5G 특화망 등 디지털 인프라가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나아가 산업단지에 디지털 및 인공지능 요소를 가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

‘생성형 AI’ 돈 벌기 시작했다… 삼성SDS ‘패브릭스’ 확장

하반기부터 AI수익화 기대

글로벌 빅테크 대비 저렴한하고 안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플랫폼을 내놓은 삼성SDS가 관계사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외부 고객사를 확장하고 있다. AI의 본격적인 수익화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KB금융과 삼성SDS는 KB그룹의 생성형 AI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상세 사업범위 및 구체적인 개발 목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KB그룹이 최근 진행한 ‘그룹 공동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 요청에 삼성과 LG, SK 등 국내 기업과 IBM과 HPE, 메가존클라우드 등 해외 기업까지 약 10개의 회사가 경합을 벌인 가운데 삼성SDS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 사업 규모는 총 114억 원이며, 올해 말 플랫폼 베타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 말 삼성 SDS가 사업자로 최종 확정되면 KB금융은 9개 계열사에 그룹

웅진 이어 KB금융 도입키로

안전성·저렴한 가격 등 영향

‘브리티 코파일럿’ 확산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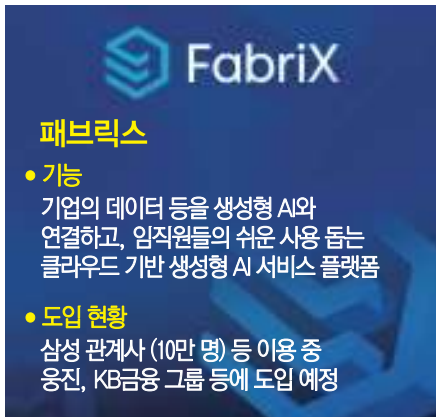
내달 삼성전자 도입 등 기대 커

“내년 매출비중 45% 달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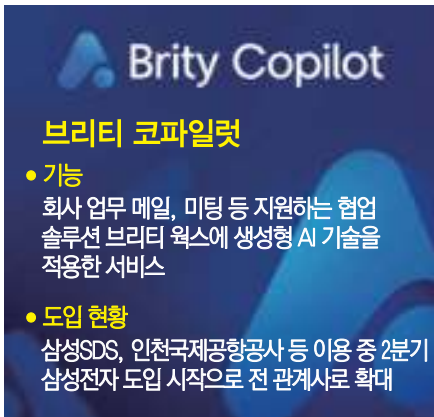
특화 생성형AI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삼성 주요 관계사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플랫폼인 ‘패브릭스’의 레퍼런스를 쌓아 온 삼성SDS가 외부로 고객사를 넓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삼성SDS는 첫 외부 고객사로 웅진에 패브릭스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웅진의 대표 사업인 렌탈 분야 관리 솔루션 ‘WRMS’에 패브릭스를 적용해 기업 고객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가령 임직원이 챗(Chat) 서비스에 업무 내용을 대화 방식으로 질문하면, 패브릭스가 기업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정확한 높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삼성SDS 기업용 생성형 AI 서비스



KB금융과 웅진 등 국내 대기업들이 AX(AI 전환)을 위해 삼성SDS의 패브릭스를 택한 데에는 이 플랫폼의 안전성과 저렴한 가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SDS는 지난해부터 150개가 넘는 기업에 PoC(기술 실행 가능성 입증)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200개가 넘는 유스케이스(적용 가능 사례)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기업 특성에 맞는 대규모언어모델(LLM)’, ‘AI의 쉽



고 빠른 적용’, ‘GPU 비용 절감’을 목표로 패브릭스를 개발해냈다.

구형준삼성SDS 클라우드 서비스사업부장(부사장)은 “보안 걱정 없이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을 기반으로 키워드 필터링, 데이터 및 사용자 권한 관리 등의 보안체계를 통해 강력한 데이터 보안을 구현했다”며 “CS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아래 있는 클라우드서부터 위에 있는 업종

까지 다 운영 중이기 때문에 최적화된 환경에 맞는 GPU를 적용해 저렴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브릭스의 확장은 삼성SDS의 생성형 AI 서비스 수익화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여러 AI기업이 LLM 등 AI 적용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수익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AI 수익화는 삼성SDS의 실적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준호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클라우드 전환기에 생성형 AI가 더해져 하반기부터 생성형 AI의 실적 기여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삼성SDS의 IT서비스에서 차지하는 클라우드·AI 매출 비중이 내년엔 45%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SDS는 기업용 생성 AI 서비스 ‘브리티 코파일럿’을 내달 경 삼성전자에 도입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전 관계사 도입, 고객사 확장을 통해 연내 2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겠다는 포부다. 임유진 기자 newjean@

28GHz 경제성 문제에 ‘부실검증’ 논란… ‘제4이통’ 예견된 8번째 좌초

〈주파수〉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자본금 2050억 마련하지 못해

주주구성 변경 등 이유로 무산

정부 “메기역할 필요… 법 개선”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취소를 받으면서 신규사업자를 통한 경쟁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전 정부를 포함해 벌써 8번째 제4이통사 무산인 데다가, 절차상 문제는 물론 28GHz 주파수 자체의 경제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약속했던 자본금 2050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주주구성도 신청서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나선 강도현 제2차관은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구성 등의 변경으로 할당대상 법인과 할당선정 법인의 동일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정부는 제4이동통신 선정 과정 및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의 절차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취소 일지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7월	정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신규 사업자에게 이용 기간 5년 제공 및 할당 대가 납부 부담 경감 등) 과기정통부,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 공고	
	11~12월	정부, 5G 28GHz 주파수 대역 신규사업자 모집.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컨소시엄 전국 단위 할당 신청	
2024년	1월 25일	5G 28GHz 주파수 대역 경매 시작. 세종텔레콤, 경매 첫날 중도 포기	
	1월 31일	스테이지엑스, 5G 28GHz 주파수 대역 4301억원에 낙찰	
	2월 5일	정부,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 및 5월 7일까지 필요사항 이행 증빙서류 제출 안내	
	4월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측에 자본금 납입 사항 공지	
	5월	스테이지엑스, 낙찰 금액의 10%인 430억원 과기정통부에 납부	
	5월 7일	스테이지엑스, 정부에 자본금 납입 증명서 포함 필요 서류 제출.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미달하는 금액 납입 → 자본금 납입(주파수 할당 필요사항) 미이행으로 취소 사유 해당 주요 주주 6개 중 1개·기타주주 4개 중 2개만 자본금 납입 →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주주 구성 및 비율 상이 및 자금조달계획 이행 서약 사유 위반으로 취소 사유 해당	
	6월 14일	정부, 자본금 부족·주주구성 상이 등 이유로 제4이통사 할당 취소 발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월7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서 진행된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사진제공 스테이지엑스

상 문제와는 별개로, 정부가 제4이통사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할당 당시부터 제대로 재정 능력을 검증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자격을 취소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한 것은 통신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금 분납 제도 운영에 대한 꼼꼼한 기준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주파수 할당을 위한 자본금을 분납하지 않는다. 현재 스테이지엑스 측과 정부는 법령 및 절차상 입장차가 크다. 정부는 5월 7일까지 2050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스테이지엑스 측은 애초에 올해 3분기까지 자본금 2050억 원을 마련 예정이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실패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재무적 요건도 강화할 전망이다. 강 제2차관은 “제도 개선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연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8GHz 주파수 경매를 다시

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넘어 ‘제4이통’ 정책 기초자재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통신 시장 경쟁이 심화하면서 거대 자본금을 투입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자가 더 이상 등장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제4이통이 필요하냐”는 날선 질문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 3사 과점 체제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신규사업자의 역할을 통신 당국으로서 계속 기대하고 하겠다는 방향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4이통사 신규진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라면, 향후에는 면밀한 통신시장 진단을 통해 그 필요성 여부를 분석하고, 건실한 재정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돼 시장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 등으로 미흡한 법·제도를 먼저 개선한 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이은주 기자 letswin@

SKT, 글로벌 통신사·빅테크와 ‘AI동맹’ 확장 나선다

덴마크 ‘TM포럼’ 라운드테이블 개최

SK텔레콤이 800여개 글로벌 통신사와 빅테크가 참석하는 글로벌 행사에서 인공지능(AI) 동맹 확장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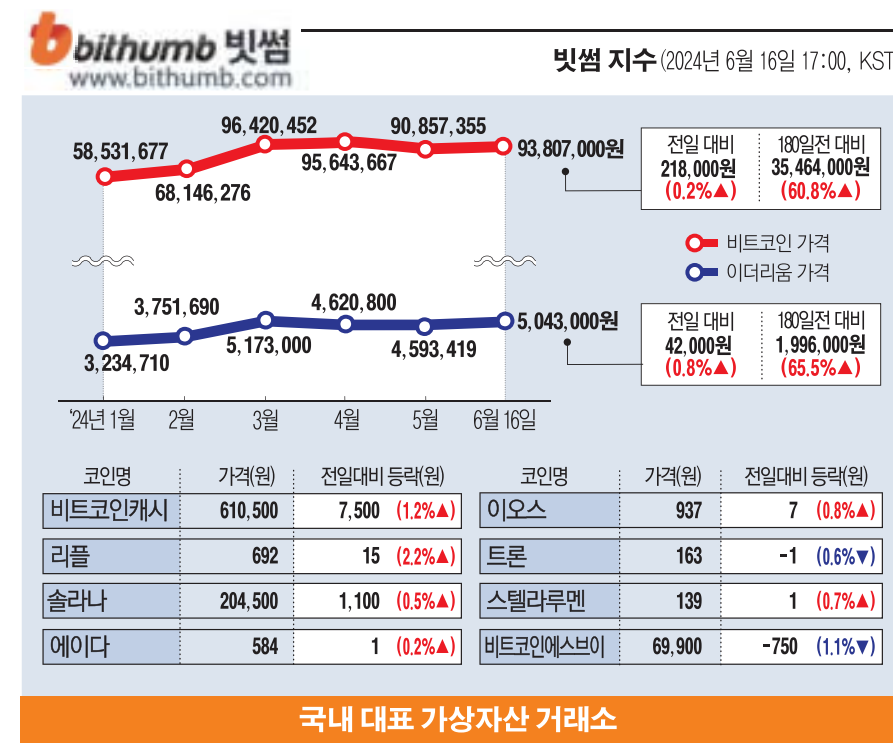
SKT는 18일(현지시간)부터 20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글로벌 통신·기술 연합체 ‘TM포럼’ 주관 행사 ‘DTW24 Ignite(Digital Transformation World)’에 참석해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 주최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TM포럼은 전세계 약 110개 국가의 800여개 글로벌 통신사 및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체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펜하겐에서 대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SKT는 유영상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정석근 글로벌/AI테크 사업부장 등 임원진이 참석하고 현지에서 2월 모바일

월드 콘그레스(MWC)에 이어 두번째로 ‘글로벌 텔코 AI 라운드테이블’도 동시 개최할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는 글로벌 통신 및 빅테크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하며 유영상 CEO가 오프닝 스피치로 막을 열 예정이다. 이후 정석근 글로벌/AI테크 사업부장, 에릭 데이비스 SKT AI Tech Collaboration담당 등이 얼라이언스 멤버 사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패널토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나리 기자 nari34@



유한양행 렉라자, 美FDA 허가 ‘청신호’… 매출 2兆 정조준

〈비소세포폐암 신약〉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 (성분명 레이저티닙)와 미국 안센의 ‘리브리반트’ (성분명 아미반타맙) 병용 요법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결과가 8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긍정적인 임상결과를 공개해 허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FDA 허가 여부는 8월 21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유한양행은 2018년 존슨앤드존슨(J&J)에 렉라자를 12억5500만 달러(약 1조 4000억 원) 규모로 기술이전했다. 존슨앤드존슨 자회사 안센은 지난해 말 FDA

안센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관련 ASCO서 긍정적 임상 결과 발표 8월 승인판 기술료 826억원 받아 ‘파이프라인 가치 25% 상향조정’

에 비소세포폐암(NSCLC) 1차 치료제로 해당 병용요법에 대한 신약허가신청서(NDA)를 제출했다.

FDA 승인 문턱을 넘으면 해외 판매로 열티와 단계별 마일스톤(기술료)까지 확보할 수 있어 유한양행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승인 완료 시 유한양행은 올해 4분기 중 안센으로부터 6000만 달러(약

826억 원)의 마일스톤을 받게 된다.

임상결과는 긍정적이다. 유한양행과 존슨앤드존슨은 ASCO 2024에서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인 마리포사(MAR-IPOSA)의 임상 3상 후속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전이와 변이 가능성이 큰 고위험 환자에게 병용 투여했을 때 중앙 진행 정도와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리브리반트를 정맥주사(IV)에서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변경한 임상인 팔로마-3(PALOMA-3)도 주목을 받았다. 제형 변경으로 투약시간이 기존 4~5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했고, 주입 관련 반응(IRR) 부작용이 66%에서 13%로 감소했다. 정맥혈전색전증(VTE) 부작용도

일부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팔로마-3 임상은 올해 최고 발표(Best of ASCO)로 선정됐다. 안센은 해당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의약품청에 ‘렉라자+리브리반트’ SC제형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미국 등 다른 국가에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렉라자가 FDA 허가를 받으면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후보물질이 글로벌 빅 파마에 기술이전해 제품 출시까지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렉라자는 이미 한국에서, 리브리반트는 미국에서 각각 단독요법 1차 치료제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업계는 두 약물 병용요법의 FDA 허가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긍정적인 임상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유한양행의 실적 전망과 기업 가치가 오르고 있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렉라자 파이프라인 가치를 기존 1조95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으로 약 25% 상향 조정한다”고 했다. 또 증권가에선 유한양행의 올해 연매출이 2조 원을 넘길 것이라 예상도 나왔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시장도 성장세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2022년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글로벌 시장 규모는 279억5200만 달러(37조 원)에서 연평균 13%씩 성장해 2026년 427억1200만 달러(56조 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제동걸린 美 생물보안법… 향후 전망은

관련 법안 NDAA 개정안 포함 안돼 최종 통과 낙관… 단독 제정 예상도

미국 의회가 올해 통과를 추진하던 생물보안법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안보와 국방 정책·예산과 지출을 다루는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다. 생물보안법 영향권에 있던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애펙 등 중국 기업은 한숨 돌리게 됐다.

16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소센터에 따르면 이날 11일(현지시간) 열린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안이 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 의원은 생물보안법을 올해 통과시키기 위해 NDAA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NDAA는 미국 안보와 국방 정책, 국방 예산·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이다. 1961년 제정 후 매년 의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된다면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환자 데이터와 납세자의 돈이 중국 등 적대국 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실행되면 관련 기업은 2032년 1월 이후 미국에서 퇴출된다.

올해 1월 법이 발의되자 우시바이오로

직스, 우시애펙 등 법안의 규제 대상에 명시된 중국 기업들은 미국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통한 규제 대상 제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우시애펙은 리차드 코넬 미국·유럽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을 워싱턴DC로 급파했고,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윌리엄 에이치슨 제조수석부사장과 엘리자베스 스틸 홍보이사를 로비스트로 등록했다.

생물보안법은 최근 막을 내린 2024 바이오인터내셔널컨벤션(바이오USA)에서도 화두였다. 중국 기업이 불참하면서 미국 기업들은 새 파트너를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바이오USA에 참가한 국내 기업 관계자들은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에 생물보안법안이 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며 올해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안의 최종 통과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향후 법 제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상원에서 생물보안법안이 NDAA 개정안에 포함되는 방안과 단독으로 법 제정 절차를 밟는 방안 등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동성제약, 몽골에 전기식 수출 나선다

동성제약이 건강기능식품 등 자사 제품의 몽골 총판 계약을 맺고 현지 수출에 나선다.

16일 동성제약에 따르면 총판사 ‘더존 코퍼레이션’, 현지 유통 파트너사 ‘파마비전(PharmaVision)’과 협업체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DS-BIO(DS바이오)’와 건강 음료 등을 몽골 현지에 수출한다.

동성제약 ‘DS바이오’는 온 가족이 섭취 가능한 제품이란 콘셉트로, 비타민 K2, 비타민 D, 유산균 등을 활용해 장과 뼈 건강, 면역력 촉진 등을 돕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 하반기 신규 브랜드 리뉴얼과 프로바이오틱스 품목 신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동성제약은 쌍화원, 쌍기원 등 감기·몸살에 도움을 주는 9가지 한방 생약성분 음료도 몽골에 선보인다.



동성제약이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자사 제품의 몽골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나원균(우측 두 번째) 동성제약 부사장 외 총판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동성제약

회사 관계자는 “몽골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젊은층 비중이 높아 미래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몽골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고객 사랑 60년… 영양제는 이거 하나면 충분”

장수의약품을 찾아서 ⑨

일동제약 ‘아로나민’

“신뢰와 경험이 지금의 ‘아로나민’을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아로나민’은 활성비타민을 바탕으로 한 피로회복 영양제다. 1963년 처음 출시돼 60년이 넘게 고객의 선택을 받으며 일동제약의 핵심 일반의약품(OTC)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동제약 본사에서 아로나민을 담당하는 서승욱 OTC 1팀 팀장과 고명훈 아로나민 골드 카테고리매니저(CM)를 만났다. 서 팀장은 “회사의 간판 브랜드를 맡는 것은 자긍심 그 자체”라며 “아로나민을 중장기적으로 더욱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국 비타민 시장의 대세인 비타민 B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의 생성과 대사, 신경의 작용 및 유지 등에 관여하는 영양소다. 육체피로, 체력저하, 신경·관절통, 어깨 결림 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로나민에 함유된 활성비타민 B1은 푸르셀티아민이다. 일동제약의 독자 기술로 자체 합성에 성공, 활성비타민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일본으로도 수출된다. 고 CM은 “푸르셀티아민이 아로나민의 경쟁력”이라며 “푸르셀티아민을 국내에서 처음 히트시킨 제품이 아로나민이다. 지금까지 100억정이 넘게 팔렸다”고 소개했다.

푸르셀티아민은 일반형비타민보다 체내 흡수가 잘 되고 지속 시간이 길다. 특히 신체 조직과 근육은 물론 뇌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어 뇌에도 공급이 가능하다.

아로나민은 총 7개의 제품군으로 구성됐다. 비타민 B군 4종을 모두 활성형비타민으로 채운 아로나민 골드를 비롯해 △아로나민 골드 프리미엄 △아로나민 씨플러스 △아로나민 실버프리미엄 △아로나민 실버액티브 △아로나민 이맥스플러스 △아로나민 아이플러스 등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핵심 제품은 셋노란 패키지가 돋보이는 아로나민 골드다. 연간 수백억 원

아로나민	
개발사	일동제약
발매연도	1963년
효능·효과	육체피로, 눈의 피로, 어깨결림, 신경통 등
연매출	516억원(2023년 기준)



아로나민 담당 CM(카테고리 매니저) 서승욱(오른쪽) 부장과 고명훈 차장이 최근 서울 서초구 일동제약 본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활성비타민 피로회복 영양제

신경·관절통·체력저하 등 해소

독자 기술로 100억정 이상 팔려

7개 제품 구성… 목적 따라 선택

2030 마음 열어 1000억 매출 목표

대의 아로나민 매출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활성비타민 3종을 포함한 총 8종의 비타민 B군이 함유된 아로나민 골드 프리미엄의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 팀장은 “골드프리미엄은 현대인에게 부족할 수 있는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D가 들어갔다. 매출을 계속 늘려 나갈 것”이라며 “제품군을 추가한다면 노력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점에 착안해 만성질환에 특화된 아로나민을 내놓고 싶다”고 말했다.

아로나민은 ‘드신 날과 안드신 날의 차이’란 성공적인 광고 메시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올해는 배우 손석규를 모델로 발탁, 브랜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고 CM은 “충성 고객층이 두터운 장수브랜드의 고민 중 하나가 신규 고객을 흡수하고자 소구하는 연령대를 너무 낮추기 어렵단 점이다. 기

존 고객을 록인(Lock-in)하며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려 한다. 충성 고객과 신규 고객을 연결할 수 있으면서 액티브한 이미지의 모델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일동제약은 아로나민 브랜드를 강화해 1000억 원대 품목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2030세대가 아로나민의 장점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 급변하는 온라인 트렌드에 발맞춰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아로나민은 한국농림협회컨설팅(KMAC) 주관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조사에서 2014년부터 11년 연속 종합영양제 부문 1위다. 서 팀장과 고 CM은 이런 성과의 비결로 각각 ‘경험’과 ‘신뢰’를 꼽았다. 서 팀장은 “장수 브랜드가 괜히 장수하는 것이 아니다. 제품을 통한 고객 경험이 축적되면 서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아로나민의 성장은 이어질 수 있다”고 자신했다. 고 CM은 “아로나민을 먹으면 효과가 있으니 다른 영양제는 필요 없이 이거 하나면 충분하단 믿음이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IBK기업은행

글로벌 금융전문지 선정

대한민국 중소기업금융 최우수 은행 賞 3관왕 수상

ASIAMONEY

Best Bank For SMEs South Korea

아시아머니 선정, 중소기업을 위한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Global Finance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The Asian Banker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아시아뱅크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세계,
IBK기업은행에
집중하다

변화를 이끄는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롯데, 시카고에 L7 오픈... 美 횡단 ‘호텔 벨트’ 완성

브랜드 첫 북미 시장 진출

신유열 전무 단독 개관식 참여
리버워크 인근 14층·191실 규모
베트남 이어 해외영토 확장 박차

롯데호텔앤리조트(롯데호텔)가 지난 해 베트남 하노이에 L7 해외 호텔을 연데 이어 미국 시카고에 L7을 진출시켰다. 롯데호텔은 미국령 괌을 비롯해 미국 동·중·서부를 잇는 대륙 횡단 호텔 벨트를 활용,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16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롯데호텔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 ‘L7 시카고 바이 롯데(L7 시카고)’를 리브랜딩(브랜드 이미지 재창출) 개관했다. 롯데호텔의 L7 브랜드가 북미 시장에 진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4층 191실 규모의 L7 시카고는 강변 산책로인 ‘시카고 리버워크’와 시카고 최대 상업지구인 ‘매그니피센스 마일’ 인근에



위치해있다. 뉴욕 맨해튼과 함께 미국 내 마천루 최대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시카고 루프(Chicago Loop) 지역이다. 시카고는 미국 내 인구 3위의 대도시이자 스타트업 산업과 벤처 캐피탈이 발달한 도시라 호텔 수요가 높을 것이라는 게 롯데호텔의 설명이다.

L7 시카고 개관은 롯데호텔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작년 베트남 하노이에 L7 브랜드 첫 해외 호텔을 연 데 이어 미국 시장으로 브랜드 영역을 확장한 데다 미

국령 괌(롯데호텔 괌)을 비롯해 미국 동(롯데뉴욕팰리스)·중(L7 시카고)·서부(롯데호텔 시애틀)를 잇는 호텔 벨트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롯데호텔은 2014년 미국령 괌에 진출하고 2015년에는 100년 역사의 더 뉴욕 팰리스 호텔을 인수,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또 2019년 시애틀 중심가에 있는 호텔을 인수, 2020년 롯데호텔 시애틀을 개관하면서 미국 서부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롯데호텔 시애틀은 44층 높이 빌딩의 1층부터 16층에

들어섰으며 총 189실을 갖추고 있다. 이어 롯데호텔은 2022년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공동 투자를 통해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킴튼 호텔 모나코(Kimpton Hotel Monaco)를 약 430억 원에 인수, L7으로 리브랜딩했다.

특히 13일(현지시간) L7 시카고 리브랜딩 개관식에 신유열 롯데지주미래성장실장(전무)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한 것만 봐도, 롯데그룹이 미국 호텔 시장에 얼마나 애착이 있는지를 방증한다. 그룹

의 신성장동력에 집중하고 있는 신 전무가 아버지인 신동빈 회장 없이 단독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 업계는 롯데가 글로벌 호텔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간 신 전무는 아버지인 신 회장과 함께 그룹 주요 행사에 함께 해왔다. 이번 개관식 당일엔 신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동행 중이었다. 이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외손녀인 장선운 롯데호텔 미주브랜드부부장(전무)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신 전무가 단독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게 롯데지주 차원에서 이번 개관식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오너 3세의 지대한 관심 속에 롯데호텔은 미국 시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태홍 롯데호텔앤리조트 대표는 “L7 시카고는 L7 브랜드의 미국 첫 진출이라는 점에서 뜻깊다”며 “한국적인 파스함이 깃든 환대 서비스와 시카고의 특색이 융합된 독특한 호텔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롯데백화점이 본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 편집숍 ‘김치얼스’ 팝업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김치얼스는 30여 종의 전라도식 김치를 고급화한 국내 첫 김치 편집숍 브랜드다. 김치를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고, 캔 형태 소용량 구매도 가능하다. 전통 김치뿐만 아니라 케일, 바질, 토마토를 이용한 이색 김치까지 판매해 외국인에게도 큰 인기다. 대표 상품은 마늘김치캔(330g), 묵은지캔(330g), 포기김치(1kg) 등이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요즘 대세 오피스코어룩... 맞춤형 정장 매출 ‘쑥’

격식을 차리되 개성을 드러내는 ‘오피스코어룩’(Officcore look)이 출근 패션의 대세가 되면서 남성복 시장에서 정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재택근무가 많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통 정장 수요는 줄었지만, 유행에 얽매지 않으려는 직장인들이 ‘개인별 맞춤형 정장’을 선호하면서 업체들도 관련 마케팅에 힘을 주고 있다.

16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최근 결혼식같은 특별한 날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클래식한 디자인의 맞춤형 정장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전개하는 남성 정장 브랜드 갤럭시는 올해 5월까지 누적 매출이 지난해보다 약 40% 늘어났다. 이 같은 매출 신장은 ‘맞춤형 정장’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시의 맞춤형 정장은 같은 기간 두 자릿수 신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그레이 컬러 정

결혼식·일상서도 입을 수 있어
삼성물산·LF·코오롱 정장 부문
작년보다 매출 두 자릿수대 증가

장 매출은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갤럭시는 최고급 소재를 바탕으로 고객 체형과 취향을 맞춘 100%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관계자는 “자신만의 차별화된 스타일을 찾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원단과 디자인, 안감, 단추 등에 개성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슈트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반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갤럭시 최고급 라인 란스미어의 매출도 올해 4월 말까지 작년보다 15% 늘었다”고 설명했다. LF의 남성복 브랜드 마에스트로는 반맞춤 정장을 의미하는 ‘MTM

(Made to Measure)’ 정장이 인기다. 마에스트로의 반맞춤 정장은 고객 개인 체형에 맞춰 기존 모델의 패턴·디자인·원단을 수정해 제작된다. 마에스트로의 반맞춤 정장 매출은 5월 누적 기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60% 상승했다. 이탈리아 최고급 수입 원단으로 만든 마에스트로의 프리미엄 라인 ‘알베로’ 라인의 매출 역시 같은 기간 작년보다 약 11% 증가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코오롱FnC)가 전개하는 캠프리지멤버스도 반맞춤 정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개인의 체형 맞춤부터 디자인 디테일까지 모두 반영해 제작하는 것은 물론 약 2주 기량의 짧은 제작 기간으로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힘입어 캠프리지 멤버스 반맞춤 정장 매출은 5월 기준 지난해보다 15% 이상 신장했다. 문현호 기자 m2h@

CU·우리은행 ‘위비프렌즈 빵’... 구매 팬 캐릭터 NFT 증정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10·20세대 젊은 고객들과 접점을 높이기 위해 우리은행 캐릭터인 ‘위비프렌즈’를 활용한 ‘베이커하우스 405’ 빵 시리즈를 출시, 캐릭터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증정한다고 16일 밝혔다.

CU가 출시한 위비프렌즈 베이커하우스 405 시리즈는 커피번, 치즈번, 말차번 등 총 3종이다. 이번 시리즈에는 위비프렌즈로 디자인된 패키징과 함께 캐릭터 6종의 띠부띠부씰이 랜덤 동봉돼 있다. 위비프렌즈 NFT를 발급받으려면 상품 패키지의 QR코드를 통해 우리WON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 띠부띠부씰 뒷면의 리디코드(난수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CU는 NFT를 발급받고 CU 자체 커머스 앱 포켓CU에서 스탬프 이벤트에 응모하는 고객들에게 풍성한 경품을 추천해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위비프렌즈

NFT 6종 전체 수집 시 스탠바이미(10명) △쿠(CU) NFT 1종 및 기타 캐릭터 NFT 2종 수집 시 CU 모바일 상품권 5만 원권(400명) △NFT 2종 수집 시 CU 모바일 상품권 2만 원권(2000명) △NFT 1종 수집 시 CU 모바일 상품권 1만

원권(4000명) 등이다.

특히 쿠(CU) NFT를 획득하면 위비프렌즈 베이커하우스 405 시리즈를 30% 할인받을 수 있다. 매장에서 상품 결제 시 NFT 하단 할인바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더 프리즈너 와인, 삼겹살과 찰떡궁합”

인터뷰

토드 리카드 美 와인 메이커

미국 나파밸리와 와이너리인 더 프리즈너 와인 컴퍼니(The Prisoner Wine Company)의 수석 와인 메이커인 토드 리카드(Todd Ricard)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선팰리스서울강남에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미국 와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와인 메이커는 포도를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 수확, 발효 등 와인 제조의 A부터 Z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

더 프리즈너 와인 컴퍼니는 1990년대 후반 미국 나파 밸리의 와인 메이커 데이브 핀니(Dave Phinney)의 첫 와인, 더 프리즈너에서 시작했다. 최고의 무기는 ‘독특한 블렌딩’이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 재배지인 나파 밸리 와이너리 대부분이 카베르네 소비뇽으로 와인을 만들었다면 더 프리즈너는 진판델과 까베르네 소비뇽, 뽀띠 시라, 시라, 샤르보노 등 5가지의 품종이 블렌딩된 레드 와인을 만들었다. 리카드는 “진판델, 시라, 뽀띠 시라 등 대중적이지 않았던 품종을 소비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블렌딩이라는 카테고리를 럭셔리 개념으로



토드 리카드(Todd Ricard)가 1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서울강남에서 ‘더 프리즈너 레드 블렌드’ 와인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세계L&B

만든 와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신세계 L&B가 더 프리즈너 3종, 언셰클드(Unshackled) 3종, 살도(Saldo) 1종을 수입해 한국에서 판매 중이다. 리카드는 “프리즈너 와인의 맛은 소프트한 탄닌감, 브라이트한 산도감이 장점”이라며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게끔 만드는 것이 프리즈너 와인의 목표”라고 했다. 특히 언셰클드 와인 브랜드에 대해 “캘리포니아 센트럴 코스트 포도를 많이 사용해 만들고 있다”며 “가장 최근에 만든 브랜드이면서 소비자에게 조금 더 거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낮은 가격대의 와인”이라고 소개했다. 리카드는 한국 판매 제품 중 ‘더 프리즈너 레드 블렌드’를 강력 추천했다. 그는 “더 프리즈너와 와이너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담긴 제품으로 밸런스 산도가 굉장히 좋다”면서 “코리안 바비큐(삼겹살)와 먹었을 때 특히 잘 어울린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세계 초일류 기술

골프채부문

고반발 기술 1위 → C.O.R 0.962 초격차
경량화 기술 1위 → 드라이버 205g 30% ↓
최적화 기술 1위 → 12,312,000 가지 스펙
세계적인 프로처럼 개개인의 스윙에 딱 맞는 스펙의 클럽을 제공

예약문의: 1544-8070 www.banggolf.co.kr

“워킹맘에겐 나랏법보다 사내룰… 포용문화 정착 노력”

유리천장 뚫은 여성 금융리더

이형미 SC제일은행 인사그룹장

“여성 임원 수를 늘리려면 최고경영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당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액션을 지속적으로 취해야 한다.”

홍콩,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HR 제네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를 거쳐 ‘인사통’으로 불리는 이형미 SC제일은행 인사그룹장(전무)이 꼽은 조직이 ‘여성 리더’를 배출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 전무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 중국에서 미래에 필요한 인력 구축을 위한 기본구조를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2021년부터 2개의 인재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인재 발탁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이 전무는 여성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홍콩 시장 두루 거친 ‘스페셜리스트’ 육아휴직제 아무리 좋아도 주변여건 중요 업계 첫 배우자 출산휴가 100영업일 부여

그는 최근 본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 임원을 최소 3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면, 여성 승진 비율을 매년 데이터로 뽑아야 한다”면서 “어느 단계에서 비율이 낮아지는지 분석하고 해당 단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30%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과정 속에 포용의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 육아휴직이 제도상으로 훌륭하게 갖춰져 있다고 평가한 이 전무는 해외의 경우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이직이나 커리어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여성들이 휴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문화를 꼽았다. 그는 “해외는 일터에 복귀한 후 아이가 아프거나 일이 생기면 편하게 회사에 얘기할 수 있다. 업무에만 지장이 없으면 관리자도 선뜻 집에 가라고 한다”면서 “다양한 환경에 대한 포용의 문화가 제도보다 여성들이 커리어를 살는데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대표적인 국가로 홍콩을 예로 들었다. 글로벌 금융 허브의 성격으로 운영되다 보니 우리나라보다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고민을 먼저 했다는 것. 이 전무



이형미 SC제일은행 인사그룹장이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본점에서 본지와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는 “코로나19 때 홍콩에서 근무했는데 재택근무에 대한 기업과 관리자, 직원들의 태도가 유연했다”며 “관리자의 얼굴을 몇 번 못 볼 정도로 근무여건이 자유로웠다”고 전했다.

2005년 3월 SC제일은행에 입행한 이 전무 역시 육아로 고민하던 날이 있었다. 치열하게 근무하면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앞에선 다른 워킹맘과 똑같은 고민을 해야 했던 것.

이 전무는 “워킹맘이 느끼는 공통의 감정은 죄책감이다.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일에 대한 죄책감이 동시에 온다”면서 “퇴근할 때는 예전 같으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했을 텐데 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업무를 좀 소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고, 출근 길에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아이를 데리고 가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 때마다 힘이 돼준 건 선배들의 조언이었다. 육

아로 바쁜 시기가 완벽을 추구하는 업무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그는 “커리어를 밟다 보면 긴 시간을 들여 하나의 업무를 완벽하게 끝내는 방식보다 빠르게 업무를 처리해 관리자로 부터 피드백을 받는 게 더 중요한 때가 온다. 육아 또한 엄마가 일을 다짐으로써 아이가 독립심과 자립심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해줬다”며 “선배들의 조언은 멘탈 케어이자 정답이었다”고 했다.

이 전무가 생각한 임원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는 “해외에 가보니 다른 것들이 보였다. 홍콩에서 근무하면서 내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처음 생겼다”며 “지나고 보니 용감했던 것 같다. 운도 좋았다. 좋은 자리가 있었고, 시기가 잘 맞아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인사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 프로젝트

여성임원, 할당 아닌 단계별 데이터 ‘집중’ 시니어 여성리더 비율 3%→27% 높은 성과
AI시대, 여성의 공감·소통 능력 강점 부각

및 지리적 영역에서의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 팀 및 시장을 연결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해 배우자 출산휴가·입양휴가를 최대 100영업일로 확대하기도 했다. 시중은행을 포함해 국내 대기업 중 배우자 출산유급휴가를 100영업일까지 부여한 것은 SC제일은행이 처음이다.

이 전무는 “도입 당시 사내에서 논란이 있었다. 부장급에서는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라면서도 “스탠다드차타드그룹(SC)의 가치가 다양성과 포용성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도입했다. 나를 포함해 많은 직원들이 도입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SC그룹 기준 지난해 SC제일은행의 시니어 리더 여성(상무보 이상) 비율은 27%다. SC그룹과 제일은행이 합병된 2005년 당시 고위급 여성 비율이 3%였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그는 “27%까지 끌어올린 데는 긴 시간 동안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한몫했다”고 말했다.

미래에는 여성들이 가진 강점들이 빛을 발할 것으로 봤다. 이 전무는 “인공지능(AI)이 글도 쓰고 PPT도 만들어주고 리서치도 해주는데, 인간으로서 갖는 경쟁력은 뭘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된다”면서 “여기서 부각되는 게 휴먼 스킬이다. 기계가 갖지 못하는 인간만의 강점이 결국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스킬이 될 것으로 본다. 여성의 공감능력과 경청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는 강점”이라고 밝혔다.

여성 후배들에게 주위를 둘러보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볼 것을 조언했다. 성향상 여성은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는 “일도 잘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뛰어난데, 고위 관리자로 넘어가는 승진의 허들을 넘지 못할까 생각해보면 내 일만 잘하기 때문”이라면서 “팀으로서 협력을 끌어내고 많은 이해당사자들과 교류하는 게 필요하다. 이해당사자들의 지지를 얻어내려면 사회를 이해하는 인사이트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있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수출입銀, 우즈베크에 첫 KTX 수출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차관공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산 고속철도 차량 구매 자금 전액을 지원한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라지즈 쿨드라토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만나 1억858만 유로(약 2700억 원)를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원에서 이뤄졌다. 우즈베키스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방문을 계기로 현대로템이 생산한 고속철도 차량을 2700억 원에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은 EDCF로 이 구매 자금을 전액 융통해 주는 셈이다. 윤 행장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개발한 한국형 동력 분산식 고속철도 차량의 수출을 최초로 지원하는 건”이라며 “앞으로 양국 경제협력 분야를 다각화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이와 별도로 우즈베키스탄의 중등 학교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교육 기자재 공급 사업과 제약 클러스터 건립 2차 사업에 각 1억4485만 달러와 1억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차관 공여 계약도 체결했다.



윤희성(앞줄 왼쪽) 한국수출입은행장과 라지즈 쿨드라토프(앞줄 왼쪽)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서명식에는 윤석열(뒷줄 왼쪽) 대통령과 사브카트 미르지야예프(뒷줄 오른쪽)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아크바르조노프 아지즈 우즈베키스탄 산업건설은행 행장과 만나 전대금 융 한도를 기존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늘리는 계약도 맺었다. 문선영 기자 moon@

윤병운 NH證 사장 ‘농촌 일손돕기’ 범농협 봉사 동참

NH투자증권은 ‘범농협 한마음 농촌일손 지원의 날’을 맞아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윤병운(사진) NH투자증권 사장과 이창욱 노동조합 위원장 등 임직원 43명은 지난 14일 김포 포도 농가를 방문해 포도봉지 씌우기 등 부족한 일손을 지원했다. 또한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은 포도 농가 지원 후 김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구매했다.

이번 농촌봉사활동은 농협 차원에서 추진한 범농협 한마음 농촌일손 지원의 날에 농협 일원으로서 영농철 부족한 농촌 일손을 집중적으로 돕기 위해 실시됐다.

NH투자증권은 농촌일손돕기 지원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년 동안 총 30회 함께하는 마을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NH투자증권은 현재 전국 31개 마을과 결연을 맺고 농번기 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기타 마을의 숙원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윤병운 사장은 “범농협 한마음 농촌일손 지원의 날 행사를 통해 부족한 농촌일손을 돕게 돼 농협의 일원으로서 보람을 느꼈고 임직원들의 더 많은 관심



과 참여확대를 기대한다”며 “NH투자증권은 농협그룹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농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도농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범농협그룹으로서 매년 농촌일손돕기를 비롯한 농가 지원 및 장학사업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지난 5월 레이디스챔피언십 대회에서 조성된 기금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방취림 조성에 사용하는 등 농축산업 상생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농촌지역 중심의 저소득 가정의 우수장학생을 선발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매년 40여 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760명의 희망나무장학생을 선발했다. 김효숙 기자 ssook@

“뭉쳐야 산다”... ‘연합전선’ 구축하는 금융사·핀테크

경쟁 구도로 나뉘던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적과의 동침’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 금융 강화를 노리는 전통 금융사들은 플랫폼의 강점을 가진 핀테크 기업을 찾고, 각종 규제에 관련된 경험이 부족한 핀테크사는 기존 금융권과 제휴를 통해 서비스 인지도와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등 ‘윈윈’ 효과를 누리는 선택을 한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은행과 손잡고 하반기를 목표로 예·적금 특화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은행권은 간편결제 주 고객층인 젊은 신규 고객을 대거 유입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네이버페이와 제휴에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을 출시해 ‘반짝 효과’를 누렸다. 이 상품은 선불충전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는 물론 최대 연 3.0%의 이자수익과 포인트 적립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2022년 11월 출시된 시즌1은 50만 좌가 완판됐고, 지난해 9월부터 시즌2가 100만 좌 한도로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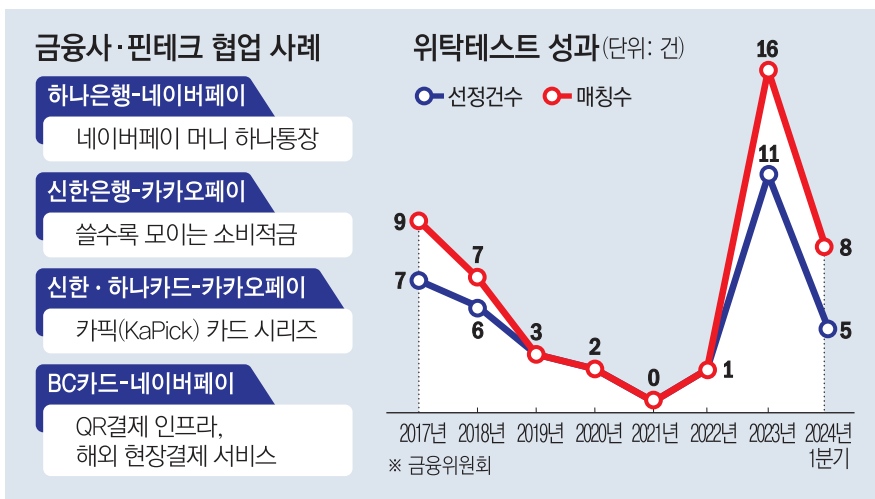
네이버페이, 하나銀과 제휴 통장 카카오페이도 하반기 예적금 출시 ‘카픽’ 등 카드사 제휴서비스 활발

전통 금융사는 디지털 금융 강화 핀테크도 인지도 향상... ‘윈윈’ 효과 출시됐다.

카드사와의 협력도 활발하다. 두 업계는 결제시장 내에서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경쟁을 벌여왔지만 최근 들어 비즈니스 협력 사례가 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신한·하나카드와 손잡고 ‘카픽(KaPick)’ 카드 시리즈를 출시 중이다. 네이버페이는 4월부터 신한카드와 공동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네이버페이를 이용해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BC카드는 2020년 네이버페이와 오픈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를 위해 QR결제 인프라를 제휴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에는 BC카드의 QR결제 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 내 유니온페이 QR결제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 머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현장결제 서비스를 개시했다.

핀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전통 금융사들은 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핀테크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사는 디지털

화를 추진하며 내부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과 노하우 확보를 위해 핀테크와의 협업을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사 제이피 모건(JP Morgan)은 핀테크 플랫폼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2020년 채권 수익률을 전년 대비 44.8%까지 끌어올렸다.

핀테크사들은 본인들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권과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 마에이터 가입자는 지난 달 초 기준 1500만명을 넘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방대한 마에이터를 내부적으로만 활용하기엔 제한적”이라며 “금융권과 제휴한다면 해당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핀테크와 금융사간의 협력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위탁테스트를 진행 중인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들로부터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위탁테스트는 핀테크사가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금융사에 위탁해 시범적으로 영업하는 제도로 올해 1분기에만 5건이 선정됐다.

핀테크사 관계자는 “금융 분야에 처음 입문하며 직접 서비스 공급을 시작하기에는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융사들은 기존 고객과 자원을 확보한 만큼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원 기자 jsw@

‘단돈 1000원’ 미니보험 전성시대 보장구멍 없는지 잘 살펴보셨나요

“상품 정보 비대칭” 우려의 시선 ‘상품 비교·추천’ 설계사 필요성 ↑ GA 등 판매채널 영향력 확대

저렴하고 단순한 미니보험과 우려되는 질병·상해만 콕 집어 보장할 수 있는 개인화 상품이 유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설계사의 상품 추천이 더 절실해지고 있다. 고객이 혼자 상품에 대해 이해하기는 쉽지만, 상품이 너무 압축돼 있어 종합적으로 건강을 살피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다. 보험의 본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판매채널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용종이나 독감 진단 등을 보장하는 미니보험이 줄줄이 출시되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지난 달 환경소옥NH독감케어보험을 출시했다. 독감 진단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쿠론은 체크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용종 진단을 보장하는 미니보험의 비교·추천 서비스를 올해 초부터 진행하고 있다. △교보생명 △농협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DB생명 등이 판매하고 있

며 1000원 내외의 보험료를 한 번만 내면, 관련 수술시 1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단순한 상품이다. 이같은 미니보험이나 특화보험은 특정 질병이나 상해에 한해서만 보장하다 보니 가격은 낮고 상품이 단순해, 비교 가능성이 커 최근 출시가 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에 당장 큰 도움이 되진 않으나 미래 고객 확보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다. 고객으로서도 필요한 부분만 콕 집어 보장받을 수 있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런 일부만 초합축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에만 가입하면 정작 오랫동안 종합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의 원래 기능과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 맞춤형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강해지고 비교·추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미니보험 등 작고 단순한 형태의 상품이 출시돼 고객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세분된 상품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상품 정보 비대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든 보험사에서 특화 상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각 상품을 모두 다룰 수 있는 법인대리점(GA) 업계의 전망이 밝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재은 기자 dove@

제2금융 대출받은 소상공인, 24일까지 ‘2분기 이자환급’ 접수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환급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로 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자환급신청은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나 2분기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에게 신청기간, 신청채널 등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

해 안내할 예정이다.

2분기 지원 대상인 차주가 일정에 맞춰 신청을 완료하면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

용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다.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차주에게 문자로 알리게 된다.

차주에게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는 스마트폰에서 바로 접속 가능한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 안내 이상을 위한 용도 이상의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문선영 기자 moon@

우리은행·우리자산운용, 글로벌 자산운용사 ‘누빈’과 맞손

IB·펀드 사업 협력 MOU



기동호(왼쪽부터)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서 부부장, 정재호 누빈 한국대표, 최승재 우리자산운용 대표가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은행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누빈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은 14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기동호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서 부부장, 정재호 누빈 한국대표, 최승재 우리자산운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누빈은 미국교직원퇴직연금의 글로벌 자산운용 자회사로 125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32개국 1300개의

기관과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고객사에 다양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약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글로벌 우량 인수금융·인프라·부동산대출 투자 기회 공동 발굴해 글로벌 IB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리자산운용은 △퇴직연금 관련 상품 △글로벌 기업, 부동산 투자 등 리테일 펀드 출시 △국내 기관전용 해외투자 재간접 펀드 출시 등 신규사업 추진과 상품 라인업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문선영 기자 moon@

한화생명GA, 업계 첫 500억 규모 해외채 발행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16일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최초로 해외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채권 발행 규모는 3700만 달러(약 500억 원)이다.

3년 만기 고정금리 달러화 채권으로, 발행금리는 원화 4.17% 수준이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이 고시하는 단기지표금리인 USDSOFR 금리에 1.00%(100bp)를 가산한 뒤, 통화 스와프를 통해 원화 4.17%

수준의 낮은 고정금리로 확정했다.

홍콩우리투자은행이 주관사를 맡고, 홍콩금융시장에서 발행을 주선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대형 보험사 중 최초의 제판 분리를 통해 시장의 프레임 바깥으로, 지난해 흑자전환을 계기로 출범 3주년 만에 첫 배당을 이룬 점 등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재은 기자 dove@

車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 ‘진로변경 사고’

손보험, 5대 분쟁 유형 공개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다 발생한 사고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당부하기 위해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

대 유형 및 운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손보험회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에 따르면 진로변경 사고에 대한 분쟁이 4만 7000건으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이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분쟁이 8500건(6.5%),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 관련 분쟁이 6800건(5.2%)으로 집계됐다.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은 4500건(3.5%)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진로변경 신호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반드시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 등을 켜는 습관을 지니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은 기자 dove@

‘코스피 박스’ 뜯은 外人… 반·금·차 ‘폭풍 매수’

〈반도체·금융·자동차〉

삼전 1.4조·SK하이닉스 1.3조
돌아온 외인 이달 3.2조 사들여
2800선 뚫고 연고점 돌파 기대

국내 증시로 외국인인이 돌아오고 있다. 반금차(반도체·금융·자동차), 이른바 ABC(AI·Bank·Car)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외국인 컴백’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코스피지수를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감도 커진 상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금에 이달에만 코스피에 3조1590억 원 유입됐다. 외인은 올해 1월 3조5731억 순매수, 2월 8조264억 순매수 3월 4조3086억 순매수, 4월 3조4311억 순매수 하며 순매수 기조를 이어오다 5월 1조1844억 순매도로 전환한 바 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1조4386억 원)와 SK하이닉스(1조



3186억 원)였다.

이어 기아(1925억 원), 현대차(1372억 원), HD현대일렉트릭(1349억 원), 한미반도체(1138억 원), LS ELECTRIC(764억 원), 크래프톤(745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743억 원), HD한국조선해양(669억 원) 등이 순매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KB금융(565억 원)도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졌다.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켈리가 계속되고 긍정적인 5월 반도체 수출이 늘었다는 소식에 반도체 매수비중을 늘리기 시작한 것이다. 작년 외국인 매수가 집중됐던 AI반도체 관련주 매수가 다시 살아나고,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로 부상한 금융·자동차 기업에 대한 외국인 매수까지 이어지면서 ABC 트로이카 업종이 결국 증시를 부양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특히 미국 정책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신흥국 증시 선호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기대로 외국인 투자금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코스피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다. 코스피는 선진 증시보다 저평가 상태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3.32%에 머물고 있다. 같은 기간 S&P500 14.52%, 나스닥 지수 19.80%, 닷케이

지수 16.60%, 홍콩H지수 12.38% 등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 주간 밴드 상단을 2800포인트로 제시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외인 자금은 미국의 AI 관련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던 시점보다 미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이 확대된 시점에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며 “우호적인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고려할 시, 외국인 수급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코스피가 2800선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발 혼풍은 채권금리 하향 안정으로, 중국발 혼풍은 원화 강제 압력 확대로 이어지면 코스피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며 “코스피는 대내외 호재와 수급 개선이 맞물리며 2800선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번 상승 흐름에서 2800선 중후반까지 상승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욱 기자 sajjoku@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에 홍준기… 금융부문 신설

신임 파트너 27명 승진 인사 단행
1970년대생 내세우며 경쟁력 강화

삼일회계법인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1970년대생 대표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또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부문을 신설했다.

삼일회계법은 파트너 총회를 열고 홍준기 신임 감사부문 대표 등 각 부문 대표와 신임 파트너 2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부문 대표에 홍준기 파트너, 딜부문 대표에 민준선 파트너, 새롭게 신설한

금융부문 대표에 이승호 파트너가 각각 선임됐다. 삼일은 금융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부문 대표를 신설했다.

홍준기 감사부문 대표는 1971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했다. 2012년 파트너로 승진 후 첨단기술, 미디어, 통신산업 리더를 거치며 삼일의 감사부문 성장에 일조했다. 특히 해외상장서비스팀 리더로 쿠팡의 미국 증권시장 상장을 돕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에 감점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준선 딜부문 대표는 1971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학사학위 동 대학원 석사

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했다. 2010년 파트너로 승진해, 포스코, KDB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인수 및 매각 자문, 가치평가와 분할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가족경영기업 서비스 리더와 딜부문 부대표(Deputy Leader)를 역임했다. 삼일회계법인이 인수·합병(M&A)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승호 금융부문 대표는 1973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했다. 2010년 파트너로 승진, 신한금융그룹의 미국 증시 상장 업무를 자문했다. 특히 삼일의 디지털 및 전산



홍준기 감사부문 대표



이승호 금융부문 대표



민준선 딜부문 대표

감사 리더를 맡아 감사 업무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 연간 17만 시간 이상의 업무 효율화를 이끌어내는 등 감사 품질 개선과 업무 혁신에서 큰 성과를 냈다.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미래 리더십이 갖춰야 할 다양성, 산업과 서비스

전문성, 비즈니스 확장과 디지털 혁신 역량 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도 성장 동력을 이어가며 고객 기업에 최고의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민 기자 si2020@

청년의 노후준비, dice@11pm의 세 번째 시리즈
〈브라보 마이 라이프〉 콘텐츠 큐레이션 매거진

은퇴 후 어디서 살아야 행복할까?
40·50세대 맞춤 주거 가이드

‘은퇴 후 평생 살 집’

매일 밤 11시, 당신이 잠 못드는 시간, 미래를 위한 주사위를 던져보세요

‘dice@11pm’의 세 번째 이야기, “은퇴 후 평생 살 집”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인생 2막을 앞두고 라이프스타일의 변곡점을 맞은 40·50세대는 여생을 보낼 집을 찾고자 합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식처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dice@11pm’은 세 번째 이야기로 노후 주거지에 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단독주택의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귀농귀촌부터,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 프리미엄 실버타운까지 다양한 주거 유형을 소개합니다. 나에게 맞는 집은 무엇인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후기청년의 노후 준비 <dice@11pm>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후기청년의 노후준비 ‘dice@11pm’ 시리즈
매일 밤 11시, 미래에 대하여 많은 불안과 고민을 안은 40대 이상을 위해 인생의 지침서를 제공하려 합니다. 정부기관과 지자체, 교육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이 책 한 권에 집약했습니다. ‘dice@11pm’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지면 구성구석 준비된 QR코드는 독자들을 새로운 정보의 원천으로 안내합니다.

이투데이퍼낸서 BRAVO

〈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집부 지음 | 166쪽 | 16,000원



집값 상승세, 서울 경계 넘어 과천·성남·광명으로 확산

〈분당〉

과천 0.38%·분당 0.30% 등
아파트값 상승폭 매주 커져
거래 늘며 매물도 급속히 감소
분당 등서 신고가 거래도 포착

경기과천과 성남 등 서울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들쭉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울과 맞닿은 경기핵심지역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서울 인접 지역 중 일부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통계 집계 가완료되기 전인데도 4월 거래량을 앞질렀고, 집값 상승세도 가파르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상승 풍선효과가 이어지면 서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 내 주요 지역 집값 상승세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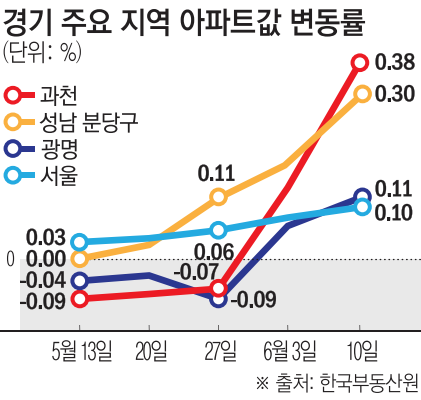
16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6

월 둘째 주(10일 기준) 과천 아파트값은 0.38% 올랐다. 과천은 이달 3일 기준으로 0.17% 올랐는데 한 주 만에 0.21%포인트(p) 집값이 튀어 오르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남 분당구는 0.30% 올라 과천 다음으로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이 밖에 평촌신도시가 속한 안양 동안구는 0.21% 상승했고, 광명은 0.11% 올랐다. 이처럼 서울 인접 지역들은 수도권 집값 상승 폭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과천과 성남, 광명 등의 5월 거래량은 집계 마감(계약 후 30일)이 아직 남아지만 4월 거래량을 일찌감치 넘어서 ‘거래 과열’ 양상도 보인다.

경기부동산포털 집계에 따르면, 5월 거래량이 4월 거래량을 넘어선 곳은 과천과 성남, 안양, 광명, 군포, 하남, 구리 등 서



울과 맞붙은 지역이 주를 이뤘다. 과천은 지난달 77건을 기록해 4월 74건을 넘겼다. 성남은 지난달 526건으로 4월 482건을 훌쩍 넘었고, 광명시 역시 지난달 207건으로 4월 183건을 초과했다.

아울러 아파트 매물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 통계를 보면 최근

한 달간 경기도에서 매물 감소가 가장 많은 곳은 14.4%(1584→1357건) 줄어든 성남시 수정구다. 과천은 750건에서 684건으로 8.8% 감소했다. 분당구는 매물 감소율 3위(-6.0%, 5361→5041건)로 나타났다. 광명은 -2.6%(3175→3093건), 하남은 -2.5%(3708→3618건) 등으로 각각 매물 6위와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에선 강남권역과 종로 등 도심권역에서 최근 아파트 거래가격이 전고점 대비 90% 이상 회복했고, 다른 지역들도 80~85% 수준까지 회복한 상황”이라며 “경기 과천이나 성남, 광명 등 서울 인접 지역은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과 비슷한 지역 특성을 보이는 만큼 최근 들어 가격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입어 과천과 성남 분당구에선 신고가 거래도 포착된다.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24일 직전 신고가 대비 1억4000만 원 오른 20억4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이날 기준 같은 평형의 매도 호가는 최저 20억 원부터 최고 22억 원까지 형성된 만큼 거래가 이뤄지면 곧장 신고가 경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마을 3단지 푸르지오 전용 84㎡형 역시 지난달 11일 14억6000만 원에 팔려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 핵심지 집값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함께 당분간 우상향할 전망이다. 윤 위원은 “서울 전역에서 전고점 가격을 회복하는 지역이 늘어나면 풍선효과로 인접 경기지역 아파트값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선도지구 선정 앞둔 분당은 ‘이합집산’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두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이합집산이 활발하다. 재건축 방식에 대한 의견차가 발생하면서 통합 단지가 쪼개지거나, 선도지구 선정 유불리를 따지며 신중론으로 돌아서는 등 통합재건축 지형이 변하는 모습이다.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분당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준비하며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던 분당 풍림·선경·효성아파트(아름마을 5·6·7단지)는 최근 재건축 추진 단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풍림·선경은 통합재건축을 이어가지만, 효성아파트는 따로 준비하기로 한 것이다.

풍림·선경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와 효성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사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특히 ‘제자리 재건축’의 정의 문제를 두고 다른 견해를 보였다.

양측은 통합단지가 많을수록 선도지구 선정이 유리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가 선도지구 평가 기준을 발표하기 전부터 통합을 준비해왔다.

해당 단지 상황에 밝은 한 관계자는 “효성은 단독으로라도 선도지구에도

통합재건축 ‘풍림·선경’-‘효성’ ‘제자리 재건축’ 이전으로 결별 참여단지 수·주민동의율 합수 어떤 게 유리할지도 의견 분분

전할 것”이라며 “인근 성남역이 GTX 환승센터가 없기 때문에 정비대상지 일부를 기부채납해 환승센터를 짓는데 기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풍림·선경 역시 선도지구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건영·태영·한성·두산삼호아파트(아름마을 1·2·3·4단지)와의 통합정비를 논의하던 분위기에는 변화가 감지된다. 이달 25일 성남시의 평가 기준을 보고, 통합 여부를 다시 논의하자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이 대두된 것이다.

통합정비 참여 단지 수가 많은 것이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분당지역 통합재건축 추진준비 단지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성남시가 평가 기준에서 다른 평가항목의 배점을 확대

하고, 한 평가항목 내에서도 점수 간격을 크게 또는 좁게 설정한다면 현재 국토부 평가 기준으로 판단한 것과 유불리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주민동의율 점수를 고려할 때는 통합단지가 많은 것이 장요소 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단지별로 각기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분당 재건축 대표단지로 종종 언급되는 시범단지(한양·삼성한신·우성·현대아파트) 역시 국토부 표준평가 기준 발표 후 지형 변화가 일어났다. 한양과 삼성한신, 그리고 우성과 현대로 나눠 각각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시범단지 4개 아파트 총 7700가구 정도로, 분당이 선도지구로 선정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1만 2000가구의 절반이 넘는다.

분당지역 선도지구 준비단지 한 관계자는 “성남시의 평가 기준 발표 전까지는 이합집산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평가 기준이 발표되더라도 최종 선정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허지은 기자 hje@

‘행당7구역’ 공사비 갈등 SH공사 검증 통해 해결

신반포22차도 8월 마무리될 듯

서울시는 그동안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일부 증액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곳곳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행당7구역 재개발과 신반포22차 재건축 2곳에 대해 지난 2월 SH공사에 시범사업 격으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행당7구역의 공사비 갈등이 SH공사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해결된 것이다.

행당7구역은 시공사가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이어져 왔다. 갈등 해결을 위해 SH

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분 526억 원(설계변경 280억 원, 물가변동 246억 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증액 요청액의 53%인 282억 원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변경 280억 원 중, 108억 원을 증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물가변동 246억 원에 대해서도 공사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검증에서는 제외했지만, 자재비 등 이례적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시공사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안해 양측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증액하는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신반포22차도 현재 SH공사에서 공사비 검증을 진행 중이며 올해 8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사비 검증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갖춰야 할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는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SK에코·HDC현산, 대전 가양동 1구역 재개발 수주

SK에코플랜트는 대전가양동 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사진 투시도>을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전시 동구 가양동 176-14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5층 14개 동, 1560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도급액은 약 5145억 원이며 HDC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SK에코플랜트의 지분율은 50%다.

사업지는 2028년 개통 예정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가양역과 접한 역세권 입지다. KTX 대전역, 대전 도시철도 1호선



대동역, 대전복합터미널도 반경 약 2km 거리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주변에 흥룡초, 가양초, 동대전중, 대성여고, 동아마이스터고 등 초·중·고등학교와 우송대, 대전보건대 등 대학교가 있다. 홈플러스, 신세계스타일마켓, 매봉어린이공원, 우암사적공원, 대동천 등 생활인프라와 녹지도 풍부하다.

전보규 기자 jbk@·사진제공 SK에코플랜트

금주의 분양캘린더

6월 셋째 주에는 전국 232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2320가구(일반분양 180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 동구 송림동 ‘리아츠더인천’, 경기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푸르지오그랑블’,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에듀포레휴티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를 가리는 단지는 9곳이다. 18일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서한이 다음그레이트’, 경남 진주시 ‘아너스웰가진주’ 등이 당첨자를 발표한다. 19일에는 인천 동구 ‘리아츠더인천’ (2순위), 경기 군포시 ‘금정역푸르지오그랑블’ (2순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6/17(월)	접수	경기	고양시	덕은동	덕은DMC에일린의뜰한강 ♣
6/18(화)	접수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에듀포레휴티스 1순위
		경기	고양시	성사동	e편한세상시티원당 1순위
		경기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푸르지오그랑블 1순위
		인천	동구	송림동	리아츠더인천 1순위
		전남	화순군	화순읍	힐스테이트화순2차 1순위
6/20(목)	오픈	충북	청주시	가경동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2차
6/21(금)	오픈	경기	고양시	장항동	고양장항카이브유보라
		경기	오산시	양산동	롯데캐슬위너스포레
		부산	동구	범일동	블랑세잇74
		서울	성북구	장위동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

(주1)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오픈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18일 1순위 접수 단지는 19일 2순위 접수 (주4)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부동산R114

위), 인천 동구 ‘리아츠더인천’ (2순위) 등이 당첨자를 발표한다. 경기 고양시 ‘덕은DMC에일린의뜰한강’은 20일 당첨자를 가린다.

모텔하우스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푸

르지오라디우스파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고양장항카이브유보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2차’ 등 5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저출생·고령화 선제 대응… 서울시, 인구정책 새판 짬다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불균형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외국인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에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서울시는 인구감소가 상수가 된 현시점에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출생, 어르신, 외국인 정책분야

전략을 담은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시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발굴·조정·평가·환류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또 인구변화대응위원회에 이민정책 등 새로운 분야 민간 전문가를 확충하고,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해 인구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재정투자도 집중한다.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으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 범위·내용을 조정하고, 효과성 높은 정책은 사업 규모를 늘리고 재정 투자를 늘린다.

인구 기본계획 발표… 일몰제 도입
세대별 일자리·외국 인력 늘리고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연구 착수
출산·양육 지원에 재정 집중 투자

시는 이번 4대 인구정책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컴팩트 도시 조성 △건강 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세대별 일자리 확대와 적극적인 외국인력 유치 지원에 나선다.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도 착수한다. 또한 간병인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 대상 인력을 확대해 나간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도시 공간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컴팩트한 도시를 조성한다. 생활인구와 외국인 인구를 고려해 2040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며,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주거와 요양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고령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위해 돌봄·복지체계도

개선한다. 특히 고령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봉사, 운동, 교육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사회활동이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향후 5~6년이 저출생 대책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출산과 양육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서울’을 만들기 위해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서울시는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채빈 기자 chaebi@

‘미래교육’ 위해 머리 맞댄 韓·日·中

한국과 일본, 중국 교육장관이 4년 5개월 만에 만나 글로벌 교육환경 격변에 따른 미래교육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한 해 앞두고 양국 교육부 간 최초로 교육 분야에 대한 협력각서를 맺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서울 양재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4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에서 “3국의 미래세대들이 디지털 대전환 및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변화를 선도하고 세계 공동의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정부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아끼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제4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는 제3회 교육장관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의 이주호 부총리, 일본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대신, 중국 후아

이진평 교육부장, 이희섭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특히, 한·일·중 3자 회의에 앞서 한·일 양국 교육부는 수교 이래 최초로 ‘교육 분야’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MOC는 전반적인 한일 교육협력 이니셔티브

교육부, 교육장관회의 개최
각국 장관, 4년 5개월 만에 만나
일본과 수교 첫 협력각서 체결
중국, 장학생 확대 등 의견 나뉘

(initiative) 각서”라면서 “교환학생, 인턴십 등 유학생 교류, 학술교류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양자 회담에서는 한·일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저출생 및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양국 정책 공유 및 협력 방안, ‘한·일 미래 청년세대 교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후 이어진 한·중 회담에서는 △디지털 교육정책 공유 및 양국 협력 △정부초청 장학생 상호 파견 확대 등 고등교육 교류 활성화와 △한·중 양국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협력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후아이진평 교육부장은 이주호 부총리를 11월에 열리는 세계직업기술교육발전대회에 공식 초청하기도 했다.

한편, 3국은 ‘2024 한일중 교육혁신 공동선언문’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3국 미래교육 협력 강화’, ‘미래 세대 교류 활성화를 위한 3국 협력’,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성과 공유’ 등을 합의했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각국이 특화된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는 사업이다. 3국은 향후 아시아 전역의 대학들이 함께 사업에 참여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학점교류,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 등을 개발 및 지원할 계획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신나는 ‘토마토 풀장’ 속으로 16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로 일원에서 열린 ‘제22회 퇴촌 토마토 축제’에서 ‘황금 토마토를 찾아라’ 이벤트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토마토 풀장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에 항소

800억원 가로채고 피해자 수백명 사기죄 형 가중돼 최고형 받았지만 양형 기준 손바야한다는 지적 나와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김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지 이틀 만이다.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이다. 다만 한 사람이 2건 이상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고형의 절반까지 형이 추가될 수 있다.

12일 선고 당시 재판부는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

하는 등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은 위 손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팀장들은 징역 6~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최고형인 징역 15년, 딸들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법원은 두 딸의 명의를

빌려 입자인 85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270명을 상대로 612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밝혀진 피해자는 총 355명, 피해액 규모는 795억 원에 달했다.

피해자가 수백명에 달해도 징역 15년이 최고형인 사기죄 양형기준을 손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기죄 양형기준은 2011년 7월 신설된 후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4월 말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8월에는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후 수정안 확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아현 기자 cahyun@

이태원 분향소, 서울시청 인근 건물로 이전

중구 부림빌딩 1층에 마련
오세훈 “안전 도시 만들 것”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참사 분향소가 16일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으로 이전했다.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 앞에 분향소를 긴급 설치한 지 499일 만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분향소 이전행사에 참석해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는 10·29 참사 희생자들에게 분향하고 묵념한 후 “가족을 잃은 참담한 심정은 여전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안정적인 공간에서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간 소통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추모이자 가장 깊은 위로라는 생각으로 기습 아픈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유가족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자주 뵙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분향소는 중구 남대문로9길 부림빌딩 1층에 마련됐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1월 2일까지 ‘임시 기억·소통의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유가족 측은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4일 서울광장 앞에 분향소를 긴급 설치했다. 한때 서울시는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보고 자진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가족이 이에 응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변상금 2900만 원을 부과했다.

유족들은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결국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해 10월 22일 변상금을 납부했다. 전아현 기자 cahyun@

한화생명 The H 건강보험 대한민국 최초 생명보험사가 또한 번 최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바뀌는데
왜 보험료는 그대로일까?
그래서 **한화생명**이 시작합니다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뇌·심장 질환의 신규 위험률*을 반영해

실속은 챙기고 보장은 더하여
당신의 삶에 The 힘이 되도록

* 뇌·심장 질환의 최신 발병률(보험 개발원 10회 참조위험률)을 바탕으로 뇌심장 질환 진단 특약 보험료를 산출하였습니다

- 업계 최초 -

新노심
위험률
적용

한화생명 The H 건강보험(무)

 080.365.6363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위험 직군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보장 개시일은 가입 후 91일부터로 하며,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일부 보장의 경우 가입 후 1년 또는 2년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1년 또는 2년 이후 지급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 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일반 금융소비자는 **한화생명보험(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 1년입니다.

www.hanwhalife.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4-01251호(2024-03-12~2025-03-11) 준법감시환인필 CS24-03-028



한화생명

독립운동가이자 마지막 몽골황제 주치의 울란바토르에 ‘이태준기념관’ 건립

보훈부, 내년 상반기 개관

국권 강탈되자 中 거쳐 몽골로
의술 펼쳐 “한국의 슈바이처”
독립운동 자금지원·숙식 제공
1921년 러시아軍에 피살당해

정부가 몽골 마지막 황제의 주치의
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대암 이태준 지
사의 기념관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에 짓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보훈
부는 총사업비 19억6000만 원을 투입
해 연면적 1520㎡ 규모의 기념관을 건
립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된 기념관에는 전시관, 수장고, 사
무실, 강당, 교육실 등이 마련된다. 보
훈부는 올해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광
복 80주년에 맞춰 내년 상반기 개관한
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이태준 선생은 몽골에서
각지의 애국지사들과 연계해 독립운
동을 전개한 애국지사이자 몽골에서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한·몽 우호
관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인물”이라
며 “몽골 유일의 독립운동 사적지인 이
태준 기념공원 부지 내 이태준기념관
신축을 통해 한·몽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태준 선생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 대암 이태준 지사. 오른쪽
사진은 몽골 울란바토르 이태준 선생
기념공원. 이 공원 부지 내에 이태준기
념관을 건립 중이다.
사진출처 공훈전자자료관 홈페이지
·서경덕 교수 SNS



이 지사는 1883년 경남 함안군 군북
면에서 출생했다. 1907년 세브란스의
학교에 입학해 약 3년 9개월 만에 졸업
했다. 이 지사는 세브란스의 학교재학
중 안창호 선생의 권유로 비밀청년단
체인 청년학우회에 가입했다.

1910년 일본이 국권을 강탈하자 이
지사는 이듬해 중국 난징으로 망명했
다. 당시 중국 신해혁명의 영향을 받은
많은 애국지사가 중국을 망명지로 택
했다. 중국 기독교회 의원에서 근무하던
이 지사는 1914년 난징을 떠나 몽골 고
륜(현재의 울란바토르)로 이주해 ‘동
의외국’이라는 병원을 개업했다.

이 지사는 당시 라마교의 영향으로
미신적 치료법에 의존하던 몽골인들
에게 근대적 의술을 선보이며 크게 활

약했다. 이후 몽골의 마지막 황제인 보
그드칸의 주치의가 됐다. 1919년에는
‘에르데니 인 오치르’라는 국가 최고
훈장을 받았다. 몽골에서 입지를 다진
이 지사는 중국 하북성 장가구와 교린
을 오가는 애국지사들에게 숙식과 교
통 등 편의를 제공했다. 또 신한청년당
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참여하는 김
규식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기
도 했다. 1921년에는 의열단에 가입해
폭탄 제조 기술자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1921년 38세의 나이에 러
시아 군대에 의해 피살됐다. 정부는 이
지사의 공적을 기려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2017년
에는 위패를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모
셨다.

전아현 기자 cahyun@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 ILO 의장 선출

한국 21년만에 이사회 의장국

윤성덕<사진> 주제네바 대사가 국제노
동기구(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
다.

외교부는 15일(현지시간) 오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51차 ILO 이사회
에서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2024~2025
년 임기 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
다고 밝혔다. 그는 ILO의 사업과 예산 전반
을 지도·감독하는 기구인 이사회를 향후
1년간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된다.

이번 선출은 56개 노·사·정 정이사들의
합의로 이뤄졌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3년 정의용 당시 주제네바대사가 의장



직을 맡은 이후 21년만
에 ILO를 이끌게 됐다.
윤대사는 “그간 우리
나라의 적극적인 ILO
활동과 글로벌 중추국
가로서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달라는 국제사회
의 요청이 이번 이사회 의장직 수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
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변화하
는 노동환경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정
부 정책방향과 같이 노동 약자를 보호하
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ILO
가 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기울여 나가
겠다”고 강조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극우 막겠다” 올랑드 前 프랑스 대통령 총선 출마

‘엘리제궁 재입성 노린다’ 관측에
“심각한 상황 어떻게 무관심하나”

프랑스야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이
극우 정당 돌풍에 맞서겠다며 총선거 출
마를 선언했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올랑드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과거 시
장을 지냈던 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
외적인 상황에서 예외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다”며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프랑스 대통령까지 올랐던 인물이다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좌파 사회당 소속인 올랑드 전 대
통령은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전임자
로 2012년~2017년 집권했지만 임기 막
판 저조한 지지율로 퇴임했다. 그는 13일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결정에 대해 “최악의 시기와 최악의 상황



프랑스야 올랑드(오른쪽) 전 프랑스 대통령이 15
일(현지시간) 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
마를 선언하고 있다. 툴(프랑스)/AFP연합뉴스

에서 내려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총선 출마 배경에 대해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
기 때문”이라며 “극우파의 위험이 분명해
진 상황에서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겠느
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 그가 언론에 다
시 모습을 드러내며 대통령실인 엘리제궁
재입성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
온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이광형 KAIST 총장, 몬트리올대학서 명예박사 학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이광형<
사진 가운데> 총장이 북미 프랑스어권 최
고 대학으로 손꼽히는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16
일 밝혔다.

이 총장은 컴퓨터 과학, 생물학, 나노기
술 등을 종합한 다학제적 접근법을 개척
한 공로를 인정받아 몬트리올대학교 명예
박사 학위 수여자로 선정됐다. 이번 명예
박사 학위 수여는 몬트리올대학교의 부속
대학이자 캐나다 최대의 공학 교육 및 연
구 기관 중 하나인 폴리테크닉 몬트리올

의 추천을 통해 추진됐다.

모드 코헨 폴리테크닉 몬트리올 총장
은 “이 총장의 총체적이고 다학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비전은 폴리테크닉 몬트
리올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구
현하고 있으며, 그간의 활동으로 미래 세
대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명
예박사 학위를 수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는 현지 시
각으로 15일 열린 폴리테크닉 몬트리
올의 학위수여식에서 진행됐다.

그는 그동안 공학 교육과 다학제 연구,



전략 수립, 미래 전략 등 여러 분야에서 국
제적인 공로를 인정받아 왔다. 특히,
KAIST 출신이 주축을 이루는 대한민국
1세대 벤처 창업가들이 기업가로 성장하
는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
다.

김나리 기자 nari34@·사진제공 KAIST

“폭염 속 근로자 안전 지킨다” 현대건설 ‘3GO! 프로그램’

현대건설이 여름철 근로자의 온열 질환
사고 예방을 위한 ‘3GO! 프로그램’을 전
개하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
다.

16일 현대건설은 고용노동부 폭염·호
우대비 안전관리 가이드 특별대응지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9월 말까지를 ‘온열 질
환 예방 핵심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하고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의 안전·
보건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핵심기 매뉴얼인 3GO! 프
로그램은 ‘마시 GO! 가리 GO! 식히 GO
!’란 슬로건 아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현대건설 현장 작업자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휴게공간에서 휴식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건설

3대 작업관리(물, 그늘, 휴식) 수칙을 중
심으로 한 대응 전략을 담고 있다.

무더운 환경 속 작업자들이 원활한 휴
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휴게

공간에는 깨끗한 물과 제빙기 등을 설치
하고 적정 온도(18~28℃)와 습도(50~
55%)를 유지할 계획이다.

전보규 기자 jbk@

남아공, 민주화 후 첫 연립정부 탄생...라마포사 대통령 연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4일(현지시간)
1994년 민주화 이후 첫
연립정부가 구성됐다
고 미국 뉴욕타임스
(NYT)가 보도했다.



남아공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
(ANC)가 제안한 연립정부인 국민통합
정부(GNU)가 이날 오전 구성되고, 시릴
라마포사<사진> 현 대통령이 같은 날 오
후 의회 선거에서 승리하며 연임에 성공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283표를 얻어 경쟁
자 줄리어스 말레마 경제자유전사(EFF
) 대표의 44표를 크게 앞섰다. 말레마 대

표는 2013년 ANC를 떠나 EFF 당을 창
설했다.

앞서 남아공 ‘민주화의 아버지’ 넬슨만
델라 전 대통령을 배출한 ANC는 2일 총
선에서 과반 지지를 얻지 못했다. 1994년
아파트헤이트(흑백 인종차별정책) 종
식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 득표에
실패한 것이다. 유권자들이 높은 실업률
과 범죄, 극심한 빈부 격차, 물·전력 부족
사태 등에 분노한 영향이다. 이에 ANC
는 연정을 추진했고 이날 극적으로 타결
됐다. ANC 피킬레 음발룰라 사무총장과
제1야당인 민주동맹(DA)의 헬렌 질레
전 국회의원회 위원장은 GNU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이진영 기자 mint@

인사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부서장 전보
△기획조정실장 박성우 △준법지원실장
김득수 △산업에너지실장 조현수 △국제
협력실장 유영선 △태양광사업실장 김희
철 △신재생지원사업실장 정진원 ◇지역
본부 부서장 전보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장승찬 △세종충북지역본부장 장광식 △
경기지역본부장 이재용 △전북지역본부
장 임태연

◆PwC컨설팅 <신임 파트너> △강정
목 △김면기 △김영국 △김인경 △서미진
△윤두오 △윤석건 △이성근 △정태일

부음

▲이준호(전 대신증권 사장·전 대한화
재 사장) 씨 별세, 조복례 씨 남편상, 이한
우(JB우리캐피탈 상무)·은주(삼성생명
근무)·한세(케이인베스트먼트 대표) 씨
부친상 = 1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 30분, 02-
3410-6917

▲송순자씨 별세, 최원석(광주경찰청
공공안전부장)·현영·은정·송희 씨 모친
상 = 16일, 전북 군산은파장례문화원
VIP실,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063-
445-4444

조장옥 칼럼

서강대 명예교수·경제학
前 한국경제학회 회장

인간의 여정에서 과학과 기술을 빼면 경제의 역사였다. 불과 도구를 사용하면서부터 다른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정주와 농업의 시작은 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향한 긴 행로의 첫발이었다. 인간이 왜 농업을 시작하였는가에 대한 정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후 변화와 야생식자원의 감소, 경작가능 야생식물의 증가로부터 시작하여 기술진보와 인구증가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정착이 배우자를 보다 잘 통제할 수 있고 후세의 양육에 편리하였기 때문이라는 가설도 존재한다.

농업에 따라 잉여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사회계급이 분화하고 정치권력이 등장한다. 그와 같은 첫 사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은 기술과 과학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달

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자를 사용하였고 농업을 위한 관개시설로부터 수학, 천문학 등을 발전시켰으며 아치형 구조물을 통해 많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건축기법도 수메르가 처음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농업을 시작한 이후 발전을 거듭하던 기술은 기원전 2500년 전부터 약 3000년 동안 정체하였다. 그동안에도 기술의 발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농업혁명과 그에 따른 진보와 비교하면 기원전 2500년 이후 서로마가 멸망(서기 476년)하기까지 3000년 동안의 기술발전은 괄목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노예 때문이라는 가설이 있다. 전쟁을 통해 노예의 노동력이 풍부하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굳이 기계와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로마제국이 혼란과 쇠락에 빠지는 것은 제국의 팽창이 멈추면서 노예의 공급이 끊기면서부터이다.

유럽에서 기술은 오히려 암흑기로 알려진 중세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으로부터 등자가 도입되면서 말이 점차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중(重)형 쟁기를 발명하였다. 2전제(2田制)를 버리고 3전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이 50% 이상 증가하였다. 물론 말의 사용은 교통의

과학기술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나?

발전을 초래함으로써 물류와 교역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암흑기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유럽의 중세는 종교의 질곡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의 고조는 종교적 편견이 인간을 얼마나 억압할 수 있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기술 더욱이 과학의 발전이 가속적으로 일어난

유구한 역사... 눈부신 산업혁명 진행
물질의 질곡서 해방됐지만 행복은?
힘과 능력 걸맞은 배려·사랑 갖춰야

것은 산업혁명 이후 19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의 발전은 기술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과학의 대전전은 아마도 지동설과 중력의 발견 정도였을 것이다. 인간의 긴 행로에 비하면 찰나와 같은 기간에 증기기관, 공장제, 교통혁명 등이 나타난 1차 산업혁명, 전기, 일관생산, 내연기관, 표준화 등을 바탕으로 한 2차 산업혁명, 컴퓨터, 정보통신, 전자공학, 생산자동화, 정보화에 따른 3차 산업혁명, 그리고 빅 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

퓨팅, 드론, 스마트 공장, 스마트 폰, 3D 프린팅,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

인간을 물질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과학과 기술이었다. 여성이 가사노동의 멍에로부터 해방된 것도 전기, 수도, 가전제품의 발달과 같은 과학과 기술의 산물이었다. 이제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국제교류를 할 수 있고 운전하지 않아도 자가용으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임박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해아릴 수 없이 많은 혁신과 변화의 결과 인간은 얼마나 더 행복해진 것일까?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 인간이 그런 힘과 능력에 걸맞은 윤리와 배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더하고 있는 것일까?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의 전쟁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다.

기계가 인간보다 더한 지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시대에 그에 비례하는 배려와 사랑을 추구하기보다는 야망과 정복을 꿈꾸는 인간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은 상상하기조차 싫다. 이름 모를 새들이 아름답게 지저귀는 시골의 이른 아침에, 창을 열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과학과 기술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장기 국가미래전략 수립할 때

국가의 앞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의료 대란에서부터 저출산까지, 국제적으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부터 남북문제, 미중갈등이 가져올 수 있는 파국까지 단기적 이슈에서부터 장기적 이슈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있다. 국가의 미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좌편향과 우편향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에 대한 인식과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전략이 부재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정책이 일관되게 이어지기 힘들다. 탈원전이나 소득주도 성장, 징벌적 부동산정책 등 시장을 거스르는 일부 정책의 정상화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나머지는 정책의 부정이 아닌 실행의 조정이 필요하다.

경제개발계획으로 고도성장 가능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장기집권과 맞물려 정책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실행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기집권에 따른 권력의 강압이 시장의 조정기능을 왜곡시키고,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 결국 장기집권의 종식과 함께 장기계획도 표류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 때 장기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전 2030'을 수립하였으나, 정권 말기에 수립되어 실행이 담보될 수 없었다. 결국 5년 단임정부에서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의미한 현실이 되어 20여 년 가까이 우리나라는 장기 비전, 전략 없이 갈팡질팡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대내외적인 대응력과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장기계획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현대 국가 및 글로벌 상황에서,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고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권력을 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계획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중갈등으로 대표되는 양극 또는 다극 체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부터 기술 격변까지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벌어지

시론

이명호

(사)케이선 이사장
미래학회 부회장

면서 여러 나라들이 다시 장기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 핀란드, 캐나다 등의 많은 선진국들이 전략적 미래전망에 대한 작업을 통하여 미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외의 중장기 트렌드를 전망하여 이에 따른 도전과제를 설정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공통된 인식의 틀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미래전망은 전부 부처 단위의 전략 개발에 밑바탕이 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여러 부처 및 이해관계자, 미래연구 싱크탱크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일방독주 안돼... '미래' 구성부터

단임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미래전망, 장기전략 수립은 정부가 아닌 국회 주도로 갈 수밖에 없다. 여야가 함께 있는 국회에서만 10~30년 미래전망과 비전, 기본전략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 10~30년 후에 누가 집권할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여야의 입장에서 유리한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시작되었다.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은 사당화로 치달아 국가 미래전략 수립에 나서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국회가 정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국회 상임위로 미래위원회를 만들고 국회미래연구원을 싱크탱크로 활용하면 된다. 전략적 미래전망 작업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국가 미래비전, 기본전략 수립 작업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면 된다.

미래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없이 격동의 시대에 국가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다.

로또 아닌 성과급 될 '원전 잭팟'

지난 2주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키워드는 단연 '석유 잭팟'이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직접 발표에 나설 정도의 무게감이다.

동해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성공만 하면 '말 그대로 로또'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다른 의미의 '말 그대로 로또'이기도 하다. 로또는 대박의 의미를 갖지만, 희박한 성공 가능성이라는 뜻도 품고 있다.

로또와 같은 '석유 잭팟' 이슈가 대한민국을 뒤흔고 있는 와중에 성과급과 같은 '원전 잭팟'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이면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의 전력공사(EDF)가 맞붙는 체코 원전 수주전 결과가 나온다.

체코는 두코바니에 2기, 테멜린에 2기 등 총 4기의 원전 건설을 계획 중으로 2029년 착공해 203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최소 30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국가이기 때문에 협력과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고, 우리는 가격 경쟁력과 계획 기간 안에 원전을 완공하는 공기 관리 능력이 우위에 있다.

노트북 너머

노승길
정치경제부 기자

만약 한국이 수주한다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에 원전을 수출하게 되는 것은 물론, 커지는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까지 확보하게 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목이 터져라 외친 원전 강국 재도약의 비전이 실현되는 짜릿함도 맛볼 수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으로, 체코 원전 수주 여부가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원전 잭팟'은 성과급이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기 위해 정부와 한수원, 민간 기업이 원팀으로 흘리는 구슬땀의 보상이다. 결정까지 이제 한 달가량 남았다. 팀 코리아는 오늘도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노력이 성과급으로 돌아와 한국의 지갑을 채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noga813@

이투데이, 말투데이

☆ 하인츠 구데리안 명언

“사태가 불분명할 때는 공격하라.”

독일 육군참모총장. 전차부대의 확충을 주장한 그는 전차군사령관으로서 기갑부대를 중심으로 한 전격전 계획수립에 큰 공을 세웠다. 모스크바 공격에 실패하고 연합군에 포로로 잡히기도 했다. 오일은 그가 출생한 날. 1888~1954.

☆ 고사성어 / 위위구조(圍魏救趙)

'우나라를 위협해 조나라를 구한다'라는 뜻. 삼십육계 중 제2계이다. "적이 집중하도록 하는 것보다 분산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 적의 정면을 공격하는 것보다 숨은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좋다[共敵不如分敵 敵陽不如敵陰]." 우나라가 조나라 수도 한단을 포위했다. 조나라는 동맹국 제나라에 원군을

요청했고, 제 위왕은 장군 전기와 모사 손빈을 파견했다. 손빈이 전기 장군에게 한 말이다. "얕은 실을 풀 때는 무리하게 잡아당기지 않는 게 좋다. 요소를 찢르고 허를 찔러 형세를 무너뜨리면 실이 저절로 녹아내린다." 둘은 위나라 수도 대양을 포위해 위군을 철수시켰다. 적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주하고 피로하게 만든 뒤 격파하는 전술이다. 출전사기(史記) 손자오기열전(孫子吳起列傳).

☆ 시사상식 / 엠 커브(M-Curve) 현상

2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던 상당수 여성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 사이에 임신·출산·육아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자녀 양육 시기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입성하려는 현상을 뜻한다. 취업률의 변화추이가 영문 M자를 닮아서 이렇게 부른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이투데이 3기 독자편집위원회는 13일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 회의실에서 2024년 독자편집위원회 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문갑(오른쪽 세 번째) 위원장과 박흥기, 장윤미, 박종민, 이규홍, 전하진 위원을 비롯해 이투데이 김덕현(왼쪽 두 번째) 대표, 박성호 편집국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친절한 해설·탐사보도로 차별화 환경·기후테크 전문성 강화해야

본지 독자편집위원회 2차회의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들이 독자를 위한 풍부한 설명과 심층적인 탐사보도로 본지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투데이 제3기 독자편집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에서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2개월간 본지 기획보도와 편집, 사설 등 본지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추문갑 위원장(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전하진 부위원장(SDX재단 이사장) △박종민 위원(한국언론학회 회장·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박흥기 위원(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특임교수) △이규홍 위원(전 사학연금자금단장) △장윤미 위원(법무법인 메타 변호사)이 참석했다.

박흥기 위원은 심층·탐사보도를 담당할 전문 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위원은 “수많은 경제매체가운데 돋보이기 위해서는 차별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가져가야 한다”며 “기획팀을 만들어 6개월가량 단기적으로 심층적인 탐사·기획보도를 준비하도록 편집국에서 협의해 지원하는 방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넓고 깊게 접근하는 기획기사가 2개월에 한 번씩만 나와도, 신문의 위상이 완전히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본지가 선도할 한 가지 전문 영역을 모색하는 것도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전하진 부위원장은 “과거 2000년대 초반 IT 붐이 일어났을 당시, 경제 매체가 해당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최신 동향과 유망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트렌드를 이끌었다”며 “환경, 탄소배출저감, 기후테크 등 현재 주목받는 분야를 경제지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규홍 위원은 경제지만의 역량을 활용한 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다. 이 위원은

“이달 초 이투데이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1면에 비중 있게 다룬 것이 독특하고 긍정적이었다”며 “경제지로서 아프리카가 향후 한국 경제에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후면이나 후속보도를 통해 아프리카와 한국 사이의 경제적 관계와 잠재적인 협력 시너지 효과를 설명해 줬다면 독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본지 인포그래픽 활용 부분이 매우 좋았다고 평가한 박종민 위원은 풍부한 설명이 담긴 보도에 힘써줄 것을 독려했다.

그는 “최근 일론 머스크의 성 추문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친 기사가 많았다”며 “이런 사건이 테슬라의 주가나 향후 기업 이미지 및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설명을 덧붙인다면 단순 성 추문 기사에서 나아가 경제지사로 완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미 위원은 “의미 있는 기획보도가 많았다. 한 면을 할애해 정책 제안을 다룬다는 점이 경제지의 전문성과 사회적인 부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 위

원은 시론과 외부 필진을 심분 활용해 독자들에게 다가갈 것을 권했다.

그는 “독자들은 시론을 읽으면서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사회의 흐름을 파악한다. 외부 필진을 다양하게 구성한다면 독자층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추문갑 위원장은 사실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저출생 해법, 최저임금 논의 등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유익한 기획기사가 많았다”라며 “사설은 매체를 대표하는 부분인 만큼, 비중 있게 보도한 현안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신문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리=한성주 기자 hsj@

사설

‘종부세·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을 위해 운을 뗐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어제 KBS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주택 가격 안정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으로 부과 대상을 좁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도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고, 자녀·배우자 일괄 공제한도를 높이는 한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이 거론한 종부세·상속세는 이중과세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편익이 있는 지도 의심스러운 세제다.

종부세는 공시가 9억 원(1주택자 12억 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2005년 도입됐다. 2022년 말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완화된 과세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징벌적 세제로 작동한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속세 또한 ‘부자 세금’ 프레임이 무색하게도 중산층을 괴롭히는 ‘악재’가 된 지 오래다. 과세 표준·공제한도·세율 등 핵심 항목들이 20년 이상 묶여 과세 대상이 확대된 탓이다. 1997년부터 그 대로의 공제한도(10억 원)가 대표적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물가는 각각 4배, 2배 가까이 뛰었는데 공제한도는 옛 기준대로이니 평범한 상속인들도 세금 허들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9957만 원이다. 통상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 원까지 총 10억 원을 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게 마련이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집 한 채뿐인 가구도 상속세 부담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악탈적 상속세율도 문제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2000년부터 24년째 50%다. 최대주주 환증과세에 따라 실제 최고 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 최악이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4개국 평균(26%)의 두 배가 넘는다. 캐나다·호주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미국·독일·영국이 세율을 낮출 때 한국만 요지부동이다. 성 실장은 “일단 30% 내외까지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전반적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제 개편은 국정철학과 맞물리는 복합방정식이다. 국가재정에도 영향을 준다. 절대 쉽지 않은 과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축인 사유재산제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문제투성이 세제를 방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몰지각하다. 여야 공히 대승적으로 임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종부세 개편을 얘기했고,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선 의견도 나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22대 국회의 협치 성과물이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도시의 품격과 ‘디자인 서울’

2020년 5월 뉴욕 브루클린의 ‘도미노 파크(Domino Park)’ 잔디 위에 그려진 흰색 동그라미는 ‘신의 한 수’였다. 당시 뉴욕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만 명까지 치솟아 비상이 걸렸다. 당국은 시민들에게 가능한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하면서 외출 시 ‘6피트(1.8미터)’ 거리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어느새 거리와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위기의 순간, 도미노 파크 책임자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지름 2.4미터의 흰색 동그라미 30개를 1.8미터 간격으로 그려 놓은 것이다.

“디자인은 생각과 행동 변화 이끄는 행위”

그러자 사람들은 그 안에서 홀로 또는 가족끼리 일광욕을 하고 책을 보고 답소를 나눴다. 일상을 즐기면서도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게 된 것이다. 디자인 분야 세계 석학인 에치오 만치니는 “디자인은 생각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든 행위”라고 했다. 흰색 동그라미가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준 셈이다.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들도 디자인적 관점에서 제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도시화는 빠른 성장과 풍요를 가져왔지만 가혹한 라이프스타일을 수반했다. ‘새로운 휴면’이란 흑평이 나올 정도다. 고립, 우울, 대기오염 등 ‘부산물’도 남겼다. 도시는 어느덧 비인간적이고 반환경적인 공간의 대명사가 됐다.

‘디자인 서울’ 덕에 그런 도시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청계천과 광장을 책방으로 만든 ‘서울야외도서관’, 문화·예술 문턱을 낮춘 ‘천원의 행복’, 걷는 재미를 주는 ‘손목타터9988’, 뚜벅이도 즐거운 ‘기후동행카드’, 동네로 자연을 데려온 ‘도시정원’, 한강을 늘어놓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도시를 인간·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바꿔놓고 있다.

일상에서 즐겁고 유쾌함을 맛본 사람들의 인식도 점차 변해 간다. 공간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머물고 싶

마감 후

김서영
사회경제부 차장



은 도시로, 문화·품격·생태·점단 도시라는 정체성으로 진화한다. GDP(국내총생산)만으로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선 갈 길도 멀다.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를 ‘디자인’했다. 2007년 재산세 격차가 15배에 달할 만큼 재정 불균형이 심하자 내놓은 처방이었다. 덕분에 2020년 5배 수준까지 줄었지만, 불균형은 여전하다. 서울시의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다.

혁신적 디자인에 걸맞은 가치 만들어야

미래 먹거리 디자인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가령 2014년 완공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당시만 해도 대규모 녹지공원과 건축물을 결합한 가장 혁신적 설계로 주목받았다. 세계 최장 컨틸레버라는 유일무이한 구조로 설계됐고, 지열과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혁신적 조형물이 그에 걸맞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이 2010년 일찌감치 세계 디자인수도로 선정될 만큼 화려했던 출발치고는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전 세계 수많은 리더들을 만났던 ‘외교 전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위대한 지도자는 비전과 일상의 간격을 메워주는 교육자여야 한다”고 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위기가 몰려오는 시대,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켜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지향하는 가치를 이뤄내는 ‘디자인 도시’ 서울을 기대해 본다.

0jung2@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l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SUNG



천만대의 무풍이 만들어진 건

- 직바람에 찌푸릴 일 없는 여름 [무풍 모드]
- AI로 전기요금 걱정 덜어주는 여름 [AI 절약 모드]
- 방방곡곡 빠르게 시원해지는 여름 [하이패스 서큐 냉방]

천만의 선택
BESPOKE AI 무풍에어컨



무풍에어컨 천만대 돌파 기념 페스티벌
뉴질랜드 투어, 신라호텔 숙박권, 백화점 상품권 등 총 1,000분께 경품을 드립니다
(24년 4월1일~6월30일 24년 무풍에어컨 갤러리 신규 구매 고객 대상,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 참고)

*미국 냉공조학회(ASHRAE)기준 Cold Draft가 없는 0.15 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till Air)으로 정의 *AI 절약 모드는 SmartThings에서만 지원하며, SmartThings는 지원 환경 및 사용 방법에 일부 제한이 있음 *AI 절약 모드로 누진 단계에 따른 에너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환경에 따라 스마트미터기 별도 구매가 필요 * AI 절약 모드 사용 시 설정 온도가 최대 2도 상승할 수 있음 * 무풍에어컨 천만대 판매 관련, 2016년 1월~2024년 3월 일체의 온, 오프라인 경로를 통한 무풍에어컨(가정용, 상업용) 스탠드형, 벽걸이형, 창문형, 시스템 에어컨 누적판매량 기준

세상에 없던
AI 라이프.